朝鮮日報
夕刊
十八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政府軍退勢挽回 勝利確信코邁進

아르자다르古城叛軍에게最後通牒

西班牙政府戰況發表

【마드리드十七日發同盟】마드리드政府는 十七日의戰況에關하야 如左히發表하엿다

一、十七日午前부터 톨레도西北三十餘哩타라베라方面에서政府軍은 프랑코將軍自身指揮下의 叛軍과 目下交戰中이나 政府軍은數千의援軍을 續續前線에 增援하고잇는데 勝利를確信한다

一、叛軍側은마드리드北東、北西의二方面으로三個部隊가首都를 進擊하고잇스나 政府軍은外國人義勇兵으로構成된 空軍機關砲隊를編成하는外 바르셀로나工場에서는 晝夜急行으로 爆擊機의 製造에努力하고잇서서 近近戰線에 出動할豫定인데 叛軍을 徹底的으로 擊滅할날이 在邇한것을 確信한다

一、톨레도市 아르자다르古城에 잇는 叛軍에對하야는 十七日午後五時 最後通牒을 發하야 叛軍이 降服에 不肯하는限 同古城의 爆破를 斷行하려고 至急 婦人小兒 等으로하여금 避難하라고 命令하엿다

(寫眞은 아자니아大統領)

革命成功時엔 아將軍獨裁官推戴

【산·찬·드·류스十七日發同盟】叛亂軍은 革命戰成功되는때에는 即時 돈·프란시스코將軍을 西班牙獨裁官에 推戴할 豫定이엿는데 將軍이 此를 拒絶하여스므로 元바르셀로나知事 아니도將軍을 推戴하기로 決定하엿다한다

蘇西兩國政府 密接關係連繫

新任駐蘇聯大使의暗躍으로

카바례로內閣出現?

【마드리드十七日發同盟】大統領에마니엘·아사니아氏는 過般新任마드리드駐箚싸베트大使의 信任狀捧呈에對하야 特히同大使를接見하는光榮을 賜하야 蘇西兩國文化의 接近을 希望한다고 傳하는데 싸베트大使는 마드리드着任以來 屢屢히 軍事的 乃至政治的活動을한다고 傳하며 히랄前首相을 排斥하고 「西班牙의레-닌」이라稱하는 카바례로首相이 極左新內閣을 組織한背後에 大使가 相當活躍하야 싸베트政府는 西班牙現政權을 援助를 條件으로하고 新內閣組織을 要望한다고 傳하며 赤化分子는 連日 가탈로니아自治領으로 마드리드市에殺到하고잇는데마드리드新聞界는 國內記事 稱讚와 外電揭載의 餘地가 乏乏함에도不拘하고 莫斯科電報에 多大한 紙面을 割하야 大戰以來 싸베트聯邦兩軍의 充實 重工業의 發達을 宣傳하고잇스며 더욱히 滿洲國內에 싸베트市民을 아모理由업시 逮捕虐待하고잇스며 北中國에잇서서 白系露人이 日本軍의 虐待를 受하야 他方面에 移動하고잇다는等의 莫斯科電報를 揭載하고잇다

不承認政策修正 헐國務長官示唆

【華盛頓十七日發同盟】스팀손前國務長官 一九三二年一月不承認政策을 宣明한 以來 米國政府는 所謂侵略의成果는 一切承認치안는다는方針을 固執하야 現在에이르럿는대 헐國務長官이十五日善隣協會席上에서 不承認政策의 修正을 示唆할것으로 보이는 外交方針을 宣明하야 華盛頓外交界의 注目을惹起하엿다 헐長官은 右演說에서 當[illegible]

翁部隊撤退後 余部隊가警備

【上海十七日發同盟】支那側情報에依하면 昨日부터 北海撤退를開始한 翁十九路軍翁照垣部隊는 今日撤退를完了하고 余漢謀軍이 이에대신하야 同地方의警備에當하고잇다한다

五個國海軍會議 意見依然不一致

【倫敦十七日發同盟】諾威、瑞典、丁抹、芬蘭各國海軍代表와 英國海軍代表間의 五個國海軍會議는 十五日繼續하고 또十七日午前 開되엿다 主로一九三六年倫敦條約의 巡洋艦艦口徑規定을 關係四個國海軍에도 適用可能한與否에 對하야 協議를 거듭하얏는데 四國代表는 모다現在意從維持를主張하고 此點을容易하게 意見一致를 不見하야 結局四國代表는 最後決定에 先立하야 本國政府의訓令을 仰請하기로決定하엿다

超過噸數保有에 英海軍見解披瀝

【倫敦十七日發同盟】英國海軍當局은 日本의潛水艦 超過噸數保有에 對하야 十七日如左히 見解를 披瀝하엿다

日本의 潛水艦 噸數超過保有通告에 對하야 英國은 아직 態度를決定치안흐나 英國으로서 本態度에 決코非同情的은아니다 에스카레드條項이 援用되고잇는것은 特히注目되는바인데 에스카레드條項援用은 日本이이를決定할것이오英國政府로서는此를 [illegible]立場이아니다 但에스카레드條項은 新艦建造에關한規定이고 舊艦保有에對하야는規定이 업다는것을 此際에留意할것이라고解釋한다

島津等不敬罪構成

【東京電話同盟】王宮의 [illegible]에 檢擧되어 靑山署에서 二旬에亘하야 [illegible]의몸이되여잇는 元女官長島津治子(六〇)女史及 角田ゑ네(三五)의兩名에 對하야는 連日 愼重한 取調를 繼續한結果 [illegible] 上田特高部長은 [illegible]과 面會한後 上田部長은 檢事局을 訪하고 當局과 協議하엿는데 現在까지의 取調의 結果에 依하면 여러가지 言動은 不敬罪를 構成하기에 充分하므로 남은것은 다만 同人等을 普通人으로서 法律上의 責任을 負하게할것이냐 아니냐하는 點뿐이다

廣西首腦廣東着 時局對策을協議

北海事件을中心으로

【廣東十七日發同盟】廣西綏靖主任及 廣西省政府主席에 就任한 李宗仁、黃旭初兩氏及 劉爲章氏等은 程潛、黃紹雄氏等의 案內로 十七日午後一時 南寧出發飛行機三臺에 分乘하고 午後三時四十分 廣東에 到着、蔣介石氏代表 陳立夫、錢大鈞兩氏及 余漢謀氏 黃慕松主席以下 廣東軍政界要人總出의 大歡迎裡에 第四集團軍 廣東辦事處에 드러갓다 李宗仁、黃旭初兩氏는 今日又는 明日蔣介石氏와 會見 時局問題의 和平解決에 關하야 相互人事를 交換한後 北海事件의 善後措處及 外交問題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遂할터이다

또黃旭初氏의 談話에依하면 李白兩氏는 이미黃旭初 丘兆琛軍의廣西撤退를 命하는同時에 余漢謀軍을派遣하야 南寧을 接收하도록 要請한바잇섯다

佛代表壽府向發

關稅通貨會議招集과 軍縮會議復活提議?

【巴里十七日發同盟】佛國代表델보外相、바스티-드商相은專門委員을帶同十七日夜巴里를出發하야 쥬네브市에向하엿다今回의理事會及總會에서佛國代表는 關稅通貨會議의招集及一般國際軍縮會議의 復活을提議할것으로보인다 即國際經濟會議는 國際經濟界의 危機를打開하기爲하야 英、米、佛、獨、伊五個國間에 關稅通貨會議를 開催가 決議되여잇스며 佛國代表는 理事會에서 右提案을 採擇하도록 主張할方針으로推測되다 또獨逸政府의 再軍備以來 國際情勢는 惡化의一路를거러 現狀을放置하면 第二次大戰을 誘發할危機이 濃厚하므로 佛國代表는 이危險을 廻避하기爲하야 軍備制限乃至 國際管理를 提唱할 方針을傳하는데 聯盟外의日米獨三國이 參加하지안흔限 軍縮制限의 目的에到達하기는 困難한 立場에잇스며 一方國際聯盟軍縮의 復活을 提議할意圖로 軍縮會議는 脫退以來 이미 自然消滅의 狀態에잇는데 佛國代表는 同會議의 幹部會는 法律上現存되여잇다는 根據에依하야 爲先幹部會의 復活을 提議하리라한다 佛國政府는 同趣旨에 依하야 他方伊太利代表와 會談을遂하고 外交方針을 決定할터인데 形勢의 重大에鑑하야 불룸首相은 二日間豫定으로 쥬네브市에進出할豫定이다

波瀾重疊의國聯

에國參加問題圍繞코

【쥬네브十八日發同盟】第九十三回聯盟理事會는 十八日부터 第十七回總會는 二十一日부터 各國代表는 續續쥬네브市에 들어왓는데 에디오피아代表의出席을 圍繞하고 會議는 벌서 波瀾이 豫想되고잇다 伊太利政府는 再次聯盟과 協力할前提로서 에디오피아代表의出席禁止를 要求하고잇스며 에디오피아皇帝는 倫敦駐箚마르틴公使等代表三名을聯盟事務局에 通告를 終了하엿다고한다 따라서 에디오피아代表의資格審査에關하야 各國代表가 信任狀을 檢討하기까지 兩派로 總會에對하야 버티리라한다 資格審査結果 如何한 裁斷이 나릴는지 目下의形勢로는 全然豫想할수업다 如何튼지 伊太利政府는 出席을禁止하기까지 理事會는勿論 總會를 뻐이코트할 方針으로보인다 一方 싸베트代表 리트비노프氏는 나치스黨大會에서 히틀러總統의 演說에應酬하야 總會席上에서 나치스打倒의 熱辯을吐할 方針으로보이며 理事會는벌서 開會前夜에 이미 波瀾을 豫想하고잇다

知事會議에 滿洲國三氏列席

鮮滿의緊密提携를 企圖하고相互認識을 깁게하기爲하야 去六月開催한 各道知事會議에 比로소 滿洲國側으로부터 옵서-바로서 同國高官이 列席 頗히好結果를 거두엇는데 來二十四、五兩日에 開催할 南總督最初의各道知事會議에 際하야도 前回同樣 同國으로부터 옵서-바로써 左三氏를 派遣列席시키기로되엿는데 一行은 來二十三日午後二時五十分着列車로 入城하게되엿다

國務院總務廳 秘書長 松木俠
民政部地方司 總務科長 竹內鐵雄
奉天省總務廳長 竹內德亥

人事·集會

◇鹽田正洪氏(農林局農產課長)新任人事次來社

地方官吏訓練의 養成機關을新設

修業年限은一個年

總督府에서는 地方官吏의 養成訓練을圖하고저 今年부터 養成機關을新設하게되야 十八日附官報로地方官吏養成所規程을發表하엿다 修業年限은 一個年으로地方行政에關한學術及其運用을實務를敎務하야 人格의 陶冶를할것이 目的이라한다

그리고 今年에는 臨時로 修業年限을六個月로하고 十月一日부터 地方官廳의 雇員中에서優秀한者를 選拔하야 總督府圖書館에서 講習식히는데 本講習所出身者는 地方官廳에 就職식히어 判任官登用의 優先權을獻與한다고한다

平時總動員計畫 外地資源에關해協議

【東京電話同盟】內閣資源局에서는 平時總動員計畫樹立에 關하야 各省과 外地間에 協議할必要가잇다고 十七、八兩日에 亘하야 午前九時부터 局內에 外地關係資源協議會를 開催하야 松井長官以下 對滿事務局 拓務省 朝鮮、臺灣兩總督府關東局 樺太南洋廳各關係者가 出席하야 昭和十二年度平時總動員計畫과 重要資源에 對한 產業政策樹立에 關하야 協議하기로되엿다

八面鋒

◇明年度 總督府豫算은 總督、總監의 査定을 바더 拓務省에 提出되엿다는데 總額이 無慮 四億一千萬圓이라고。

◇今年度豫算이 三億三千萬圓이니 今年度보다는 八千萬圓의 增加로、明治四十四年의그것에 比하면 實로 十倍强。

◇歲入內譯은 詳細치는 못하나 鐵道、遞信、專賣等 官營事業의 增收와 好景氣에 依한 租稅收入의 增大때문이오、

◇歲出內容은 陸海空 三方面의 交通機關 整備와 燃料、棉花、羊毛等 國策費의 增大와 災害對策이 그 主要項目이라고。

◇廣義國防은 生活安定을 內包한다。農村救濟費와 敎育費에 얼마나 豫算이 計上되엇는지 궁금。

◇朝夕으로 金風이 蕭蕭。어느듯 가을인가!。

滿洲事變五周年 臨時大禮祭

【新京十八日發同盟】滿洲事變五周年을마저 首都新京에서는 日滿各機關、各戶마다日滿兩國旗를달아 世界曠古의偉業인 滿洲國端緖로된 當時를 追憶하는同時에 植田關東軍司令官、張國務總理以下 日滿軍官民은 十八日午前九時忠靈塔前에參集、臨時大禮祭를擧行、偉業達成의 華를떠러저 滿蒙의土로된 英靈에哀心感謝하는同時에 偉業의貫徹을盟誓하엿다

白頭山探險記

分水嶺上定界碑 東爲土門西鴨綠

㉘ 徐椿

無樹地帶를 約三十五里 가서 에 東便으로 向해 저인 한溪谷이 잇는데、이것이 有名한 土門江의 流源地다。여기서 조곰만 터가면 定界碑가 섯든 자취가 잇는데 只今은 그碑石은 어듸로 가고 다만 자그마한 標木이 서 잇슬따름이다。그標木에는 아모것도 씨운것이 업는 故로 先驗者의 말을 듯지아니하고 보면 無心히 눈 넘겨 볼만한것이다。定界碑近處에서 西向해 보면 큰 溪谷이 잇스니 이것도 亦是、定界碑와 아울너서 歷史上으로 有名한 鴨綠江의 流源地라는것이다。

말하면 定界碑 잇는 자리를 마루(嶺上)으로하야 東西二谷이 난호엿는데 東谷은 土門江의流源이오、西谷은 鴨綠江의 流源이다。立碑地를 分水嶺이라하야 嶺이라는 이름이 부텃스나 明로 두드러지게 隆起한 곳이 아니요、極度의 緩傾斜地로서 隆近一帶가 平平相相한 草原이다。

여기 잇든 定界碑를 어느해에 누가 업시하엿는지 그것은 仔細히 알수가 업스나、大槪昭和六年이나 同七年에 업서젓다는 말이 事實에 가까운듯하다。

昭和五年에 갓다 온 사람의 말을 드르면 그때까지는 잇섯고、昭和八年以後에 간 사람부터는 발서 그碑石을 볼수가 업섯다는것이다。

別項에 紹介한 碑文에 依하건대 碑石 선 자리가 即、分水嶺이오、東谷을 土門江의 流源으로 잡고 西谷을 鴨綠江의 流源으로 잡은것이 分明하다。

그러고 東谷右岸과 西谷의 左岸에는 幾百尺씩 相距하야 돌무덤이(石의 堆積)를 싸아노앗슴을 보는데 이것도 亦是 立碑當時에 잇서서 定界의 物的表示로 싸아 노흔것이라고 한다。

立碑當年인 康熙五十一年은 肅宗三十八年이오、西曆으로는 一千七百十二年에 該當하다。故로 朝鮮과 淸國과의 間의 이定界는 只今부터 二百二十五年前이다。

그後鴨綠江이 兩國間의 國境이 되다는 一點에 對해서는 別로 問題가 업섯스나、土門江國境問題에 對해서는 兩國間에 多年을 두고 相當한 紛糾가 잇서 오다가 明治四十二年(距今二十七年前) 九月八日、日淸間의 『間島에關한 協約』이 成立된 後에 비로소 沈熄되엿다。所謂 土門江國境問題라는것은 무엇이냐하면 土門江과 圖們江(豆滿江)과는 한江의 異名이냐? 江은 다르면서 이름만이 類似하냐?하는問題로부터 發生하는 紛糾다。定界碑의 東谷은 土門江의 流源이 分明하다。따라서 이碑文대로하면 土門江以南의 地는 當然히 朝鮮領域內에 들것이고 故로 間島一帶는 朝鮮에 屬할것이다。그러나 圖們江 即 豆滿江은 그流源이 亦是、白頭山에 잇스나 그 流源地는 神武城인데、그神武城은 定界碑東谷 即 土門江流源으로부터 훨신 右便에 잇는 아조 딴 갈레다。故로 圖們江國境說에 依하면 間島一帶는 朝鮮의 領地가 아니다。

詳言하면 土門江은 그流源이 定界碑東谷으로서 그末流가 松花江에 合流되고、圖們江 即 豆滿江은 그流源이 神武城으로서 그末流가 日本海에 注入하는것인데、土門江國境說에 依하면 間島一帶가 朝鮮에 屬하고、豆滿江國境說에 依하면 間島는 朝鮮에 屬하지 안는다는것이다。故로 中國은 土門 即 圖們說을 主張하고、朝鮮은 土門、圖們相異說을 主張하야 間島一帶의 領有를 서로 다투엇다는것이다。

이것을 보면 이紛糾問題는 立碑當後의 淸國裁界士穆克登이가
一、土門을 圖們(豆滿江)으로 誤認하고
二、圖們의 流源이 分水嶺에 잇는것으로 誤認
하는等 二重錯誤의 所致라고 할것이다。

何如間 이問題는 明治四十二年、當時 韓國의 外交權을 가지엇든 日本이 淸國과의 間島協約에 잇서서
『第一條 日淸兩國政府는 圖們江을 淸韓兩國의 國境으로하고 江源地方에 在하야는 定界碑를 起點으로하야 石乙水로서 兩國의 境界를 삼음을 聲明함。』
이라고하야 兩國間의 紛爭은 비로소 沈熄되고、間島一帶는 朝鮮으로부터 떠러저 나간것이다。

(八寸二分) (五寸九分) (二尺三寸一分) (一尺八寸三分)

大淸
烏喇總管穆克登奉
旨查邊至此審視西爲鴨綠東爲土
門故於分水嶺上勒石爲記
康熙五十一年五月十五日
筆帖式蘇爾昌通官二哥
朝鮮軍官 李義復 趙台相
差使官 許樑 朴道常
通官 金應瀗 金慶門

◀分水嶺의 定界碑
한방울 비떠러저
잔들에 부다치면
半방울 東에흘러
半방울 西에흘러
土門江 물이되고
鴨綠水 되여가니
分水嶺 여가기요
碑ㅅ가취 여기잇다。

갈니어 떠러짐을
저물아 怨恨마라
東으로 돌고돌고
西으로 가고가면
큰바다 한구석에
맛날날 업슬것가

한줄기 흐름에
돌쏘아 表해노코
이나라 저나라라
땅다툼 하는것은
사람의 作亂이니
사람이 또 지우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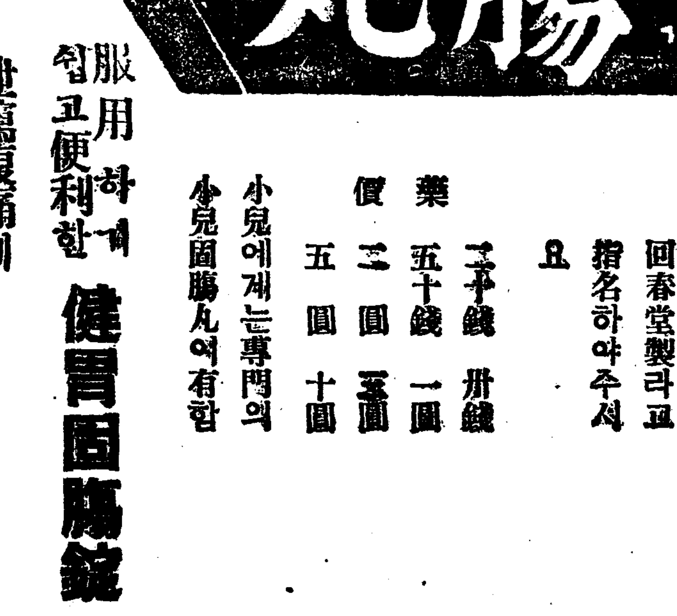
二百年 짜른歲月
흐르는 그동안에
定界碑 어데가고
자취만 남앗세라
사람아 철잇거든
웃도말고 울도마라。

이定界碑를 보고 朝鮮의 恥辱이라하야 悲憤慷慨한者 업지 못하나 이것은 歷史的事實을 無視하는者의 狂惱에 不過한것이다。康熙帝當時의 淸國의 隆盛을 가지고 丙子胡亂後七十餘年에 不過한 肅宗當時의 朝鮮을 對하야 國境을 定함에 잇서서 白頭山은 그만두고 京畿道三角山에 와서 定하자고 할지라도 朝鮮은 이것을 拒否치 못햇슬것이다。悲憤안흘때 悲憤하는者는 정말 悲憤할때에 悲憤치 못할까 두려워하는바다。

(寫眞은 定界碑近傍의 돌무덤 이=(續))

泄瀉腹痛 腸胃疾患에
泄瀉・腹痛・腸胃加答兒의速治良藥
健胃固腸丸

一、本劑는오래동안實驗과多大한信用에엇는胃腸藥으로泄瀉腹痛胃腸病에代表的名藥입니다
꼭 더욱本劑는잘팔려지는때문에類似品이만하엿사오니사실때에반드시回春堂製라고指名하야주시요
藥價 二十錢 卅錢 五十錢 一圓 三圓 五圓 五圓 十圓
小兒에게는專門의小兒固腸丸이有함
服用하기쉽고便利한 健胃固腸錠
泄瀉腹痛에 一回三錠
腸胃衰弱에 一回一錠



錠劑의藥價改定
價格半減에相當한 內容增量을斷行함
新藥價
金三十錢(舊十五錠入)은三十一錠入
金五十錢(舊二十一錠入)은四十八錠入
金一圓(舊四十八錠入)은百二十錠入
金三圓(舊二百錠入)은五百錠入
大阪市東區伏見町
鹽谷同春堂
振替大阪一七〇番

警官千名增員

財務局에서 豫算承認

平壤、釜山에 一署式增設과 國境에 六百名增駐

경무국에서는 명년도예산에 경관의 대증원에대하야 요구하엿든바 이번에는 재무국에서도 그필요를 인정하고 경시이하 순사까지 약일천명의 증원을 승인하엿다한다 일천명중에서 국경수비대의 철폐에따른 그보충으로 약륙백명을 또 그남어지는 평양(平壤) 부산(釜山)량도시에 경찰서하나씩의증설 계획과 평남북도에 외사경찰과의증설 두 사법근무제의 주재소경원의증가 도 중앙선철도공사의 준공에따라 연선에 주재소의 신설등에 충당하는외에 경성부의 구역확장에 따라 대도시로서의 경비력확충을하고저 경기도에 형사시설의 경찰증원을 계획하는것으로 경무국다년간의 현안이든 경관대증원계획은 드듸어 명년에 실현하게되엿다한다

兩道刑事課新設

平南、慶南、爲先兩道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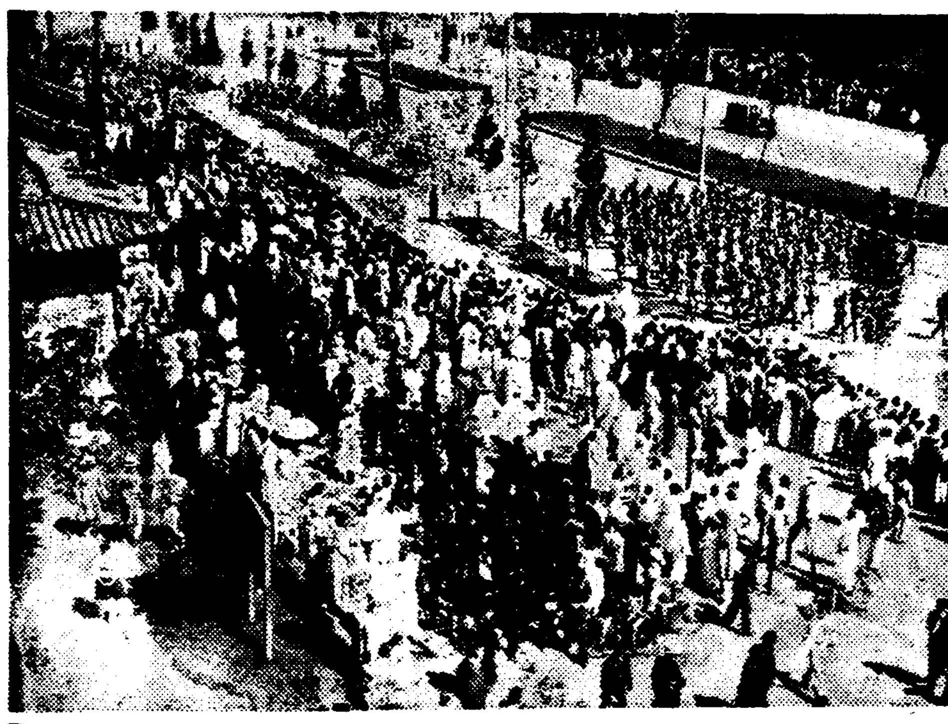
경무국에서는 전긔와가티 명년도에 일천명의 경관대증원을 하게되엇다는데 경무국에서는이것을 긔회로 다년간의 현안이든 형사과의 분과독립을 도모하고저 전긔증원된 경관으로각도에배치되는중에서 약간씩을 형사경찰에 충당하기로하야 명년에는 위선평남과 경남량도에 형사과를 독립식히게 되엇다한다 따라서 금후도예산편에는 형사과의 독립으로예산을 요구치안코경관의 증원으로써 형사과를 독립식히게하야 처음에는 경부과장을 임명케할터이라는데 명년에는 전긔와가티 경남 평남 래명년에는 함남과 경북 평북등의 순서로 각도에 전부형사과를 완성케하리라한다

硝煙은 全市에 濛濛!

鍾路一帶戰場化

猛烈한攻防戰으로始終할 今日·記念演習戰

구월십팔일 만주사변오주년 긔념일에 제이십사단관하의경성에는 대시가전의 연습이잇서 오전열시부터 십일시반경까지는 종로부를 중심으로서대문경찰서아프로 남대문 황금정 삼정목 창덕궁압까지를 배경으로한 시가중심지는 일책의 교통까지 두절되엿섯다 이날오전십시 남산부근에서 울리는 한방의 화포소리로 시가전은 전개되엿다 새벽부터 시가에 맹습하여온 공격군은 동으로는 황금정삼정목 으로부터 남대문 서대문의 의주통방면으로 포위진을치고 제일선에는 경긔관총대에 소총대를 세우고 제이선에는 중긔관총대 제삼선에는 포병을세운다음 공격을 개시하자 방어군도 공격군과가티 포진을하고 극력방어을 시험하나 공격군의 맹렬한 진격에 쪼끼어남대문 방면에서부터 태평통일대로 퇴각을하게되자 이때부터쌍방의 공방전은 자못맹렬하여지며 긔관총대의 총성은사방에일어나며빌딩가에는어듸보다더 음향이 요란하야 처참한 광경을일우엇다 십시반경 공격군의 발포한 포탄은 체신국과 보험과에 떠러저 화재를 이르켜흑연이뭉게뭉게 떠오르자 일변소방대가출동하야 소방에 진력하는등 시가전은 이때부터 더욱맹렬하여젓때전차(戰車)까지제일선에나와 활동케되며 공격군은마침내 파출소통네거리까지 도달하자 방어군은 누런빛의 독와사와 연막을치고 총희가 이때에 공격군은 모다 가스마 찻



展開된科學陣

防空戰方酣

羅南一帶中心으로

【羅南에서 本社特派員李有根十八日發電】 북조선과 만주간도(間島)일대에서 전개된 대방공연습(防空演習)은 시작일은 쏘다지는 비로 말미암아 충분히할수 업섯고 십팔일부터 정식으로시작되엿다 십구사단(十九師團)관내의 총신부선전신 자동차 고사긔관총(高射機關銃)등을 비롯하야 비행기 고사포(高射砲)소방대(消防隊)가 참가하야 연합(聯合)을 각진에 두고서 적군이 처들러올것을 가상하고 명령일하를 기다리서 각지의 방비사령부(防護團)과 방호단(防護團)에서 공중을 진히며 연막(煙幕)을치고 독와사(毒瓦斯)를 피우는등으로 근대과학전의 대회공(大繪空)을 벌엿다 밤에는 등화관제(燈火管制)로서 암흑세계로 되어버리고 군대편이 분주히 왕래가하하야 아주 전시상태를 나타내엿다

共明學校記念式

【北栗】재녕군북률면남지리공명학교(載寧郡北栗面南芝里共明學校)에서는 금일사십일에동교창립삼십주년긔념과기창도(奇昌道)선생근속오주년표창식을거행하야동서에 당일에 대운동과 추천대회와밤에는 화예회를개최할터인대 지원일동은 준비에매우분망한 중이라고한다

安州도血盟團

農民赤化事件檢擧

【平壤】안주경찰서에서 검거하는농민적화사건의 관계자는 안주군대니면이서리(安州大尼面尼西里)일대의 청년, 우차부등이 십여명에 달하여작년 개천서(价川署)에서 검거하든 혈맹단(血盟團)의 여당이 농민조합의 재회를 계획한것이다 검거자중주요한인물은 박천범(朴千範)박창간(朴昌幹)량주선위시하여 가안성(安城)인 安元根 安炳杰 安炳[illegible] 安秉[illegible] 安[illegible] 安[illegible] 부락이기때문이며 전쿼부락이안씨 외실어방으로 전쿼부락이안씨 농사가한창밧분때의 청년일이 전부걱거되기때문에 경지안할 손등을 일으키고잇다한다

中央高普生事件

韓東正等八名公判

共產主義宣傳을否認

작년시월에 부내중앙고등보통학교에서 일어난 생도들의 동맹휴학사건으로 말미암아 경찰에 탐지케된 소위중앙고보적색독서회사건 즉 학생과 사회과학연구회사건에 관련혐의로 제학생명이 서로련락하야교내에 적색독서회를 조직하고 일반학생에게 좌익사상을선전하는한편 동지를 획득하야반제동맹(反帝同盟)까지 조직하려하엿다는 피고한동정(韓東正)등 여덟명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 폭력행위처벌법위반및 공무집행방해사건에관한 일회공판은 십팔일 오전아홉시반부터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향천(香川)검사관여 신태악(辛泰嶽) 김병로(金炳魯) 서광설(徐光卨) 리홍종(李弘鍾) 한영욱(韓永煜)등 다섯변호사 렬석미테 열리엇다 사실심리에들어가서 먼저한동정부터 심리를 시작하엿는데 그는대체로잇서서 사회과학을 연구하기위하야 학교동무끼리모혀서 자기들의 보고읽은바를 토론하엿은 잇스나 소위공산주의를 실행하기위하야 동지를획득하려한일 또는반제동맹단체를 조직하려한일은 업다고 전연부인하야 그는학생으로서 연구의목적으로 사회과학서적을 몃권읽은데지나지못하다는것을 주장하엿다 사건내용에 [illegible]하야 서로련락되야 따로따로질문을하자면 중복될것이만흠으로 간단히각피고에게 리력과 사회과학에 흥미를가진경로에잇서서는 한동정이 고등경무를 한꺼번에 심리케되야 한동정의 심리를 간단히 끗치고 김세환(金世煥)까지 심리한다음오후에공판을 속행할뿐를 말하고 오전열한시반 잠간휴정하엿다 그리고 당일출정한 피고씨명은 다음과갓다

被告氏名

▲治安維持法違反被告 ▲咸南定平郡春島面月城里韓東正(二二)▲咸南利原郡東面龍山里金世煥(二二)▲全北金堤郡金溝面上新里張斗進(二〇)▲忠南大田郡山內面郞山里宋在翼(二〇) ▲治安維持法違反及暴力行爲處罰法違反被告 ▲京城府[illegible](二二)▲京城府[illegible]町一三二一[illegible](二二) ──大邱府 西城町一丁目二三 [illegible] ▲治安維持法違反、公務執行妨害、暴力行爲處罰法違反 [illegible]

故土災民을救하자!

街頭에선義勇隊

東京우리留學生들이모혀 거리거리서義捐金을募集

【東京】륙칠십여명의 사상자와백만여명의 리재민을내인 고금미중유의 금번조선풍수재는 참으로 그처참한 광경은 목불인견이며 갈수록이나 빈곤에우는 그네들이바든 피해액이 일억원에나달한다는 본보기사를본 동경조선유학생남녀 팔십여명은 지난십칠일부터 본보동경지국후원으로 동경조선YMCA에모이여서 조선수재구제금가두모집대(朝鮮水災救濟金街頭募集隊)를 조직하여 동경시내의 가장번잡한거리인 은좌(銀座)와 신숙(新宿)을 비롯하여 십수개소의 가두에나서서 고향의 참담한광경을 왕래하는사람들에게 소리처하소하며 맹렬히활동하고잇다 참으로 그뜨거운 정성에는 보는사람으로하여금 눈물을 자아내게하는바잇다하며 운집하는 동정금도 거액에 달할것이라는바 그가록한 모임의지휘위원은 다음과갓다고한다

總務部 東永鎬(中大) 朴永山(日本體專) 趙聖七(中大) 尹善好(中村女學校) 宣傳部 [illegible](中大) 咸[illegible](日大) 李[illegible](中大) 會計部 [illegible](日大) 李[illegible](中大)

大豆預賣防止

縣公署서融資

【奉天】흉작지방은 특히면민이 다수거주하는지방으로 여름동안 빈민들의 궁핍한기회를타서 대두예매(大豆預賣)의 폐해가 몹소하여 일반빈농들은 이중의착취를 당하고잇다는데 당지현공서에서는 이폐해를 철저적으로방지하기위하여 사만오천원의융자계획을세우고 지난구일현장(縣長)을 경유하여 오는가을까지 무리자로 자금을 빈농민에한하여 대부하여다한다

天氣予報

槪況 朝鮮低氣壓은 日本海北部와 流球小笠原島間에잇고 七六二粍의 高氣壓은 東支那及黃海로부터 滿洲朝鮮及關西地方으로 퍼지고잇다 滿洲朝鮮은 大概日氣가조흐나 南岸及朝鮮海峽은 曇、西日本은 大槪晴、東北地方以北은 雨、

豫報 京城地方晴、曇 明日晴、曇 京畿全區 同

昨日最高 二〇度四
同 最低 一二度六
今朝最低 一〇度
今日正午 二〇度八

幽靈會社꾸미고

就職保證金專門詐欺

本町署에서「中央理財社」淸掃

약일개월전부터 시내본정서에서는 황금정(黃金町)이정목 모생명보험회사(某生命保險會社)견물에다가 간판을걸고잇는 중앙리재사(中央理財社)의 내용에대하야 내사중이든바 수일전그것이 유령회사라는 유력한단서를잡고 그서식송(植松)형사는 그의전무리사(專務理事) 백상암(白象巖)(三〇)을인치하고 취조중이다

그는작년구월달 전긔모생명보험회사의 외교원으로 입사한후 그곳 사무실 하나를 비러가지고 중앙리재사라는 엉터리 간판을 걸고 서민금융(庶民金融)을 취급하는듯이 꾸며노코 각신문지상에 크게광고를 하는한편 근일중 일본모재벌의 후원으로 백만원자본의 서회를창립중이라는등의 쌔빨간 거짓말로 금번봄 회장을 중심한 재벌에잇는부호의 자제들을 신용하고 사원으로 채용하엿다 그리고채용시 신원보증금으로 각기 이삼백원식 바더서는 사용을채우고 이외에 입사시 각기 일만원의 생명보험에 가입식히고서는 전긔생명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바더먹어다고한다 이리하는동안 월급은안주고 회사의내용은 엉터리업는것이 판명되자 각사원이 서로떠들므로 백상암은 그와뒤째으로수하정(水下町)모양복점주인홍갑언리설로 속이여서 각사원에게양복 한벌씩입부로 꾸며주엇다 이와가튼 엉터리업는 수단으로 이사람저사람 속이여먹은 피해액이 수천원에 달한다고한다

江界에初雪

【新義州支局特電】 십칠일밤 평북강계군 룡림면(江界郡龍林面) 평안남북도경계산중에 한치가량의 눈이내렷는데 작년에비하면 닷새가 느진세음이다

流行歌 青春日記

萬三千圓農債

쉬원하게蕩減

◇盧裕成氏의特志

미증유의 풍수해로 삼남일대 리재민의 참상은 새삼스럽게말할것도업고 이에대하야 구제금품이 각방면으로부터 답지하는중 매일 지상에발표되는바와갓거니와 경성근교(近郊)도수해를당한 농민이 적지안허 그들의 사정도 걱정되는터인데 시내 남대문시장에서 생과 채소의위탁판매를하는 일신상회 노유성(日新商會盧裕成)씨는 칠팔년동안비료대、농비기타를 대부하야 준돈이 원금으로 일만삼천원이란 거대한 금액인데 농촌정경을생각하고 이빗을갑고저 애쓸것을 동정하야 조곰이라도 곤궁에서 버서나게 하기위하야 채권전부를 탕감키로 작정하고 조흥동(趙興東)외 일백십오인 채무자에게대하야 원리금전부를 탕감한다는글과 채용증서를 동봉하야 우편으로 각기발송하얏다 한다

(사진은 노유성씨)

東興中學蹴球軍

異域 間島의常勝軍

十九日龍井發、鄕土訪問

間島龍井村에서 傳統的强味를發揮하야 常勝軍의 稱號를 맛고잇는 東興中學蹴球團은 이번朝鮮蹴球協會의 招聘을바더 明十九日龍井村을떠나 鄕土訪問의 壯途에 오를터이라는데 一行은 京城、平壤을거처 滿洲各地로轉戰할 豫定이라한다 京城에서는 二十二日부터 三日間 京城運動場에서 培材高普、普成高普、徽新學校等과 對戰키로 되엿다는데 詳細는 追後發表하기로되엿다

煥 張炳五 韓龍浩 姜蓼益 金永燦 金信福 韓泳澤 韓載德 朴永哲 金昌勳 李正現 宋洙翰 以上

平蹴과絶緣코

關西蹴球團組織

【平壤】우리蹴球界의强豪 平壤蹴球團의 平鐵으로活躍하든 十餘名選手들은 이번事情에依하야 同團과絶緣하고 새로히關西蹴球團을 組織하는同時에 長文의聲明書를 發表하엿다는바 關西蹴球團의 陣容은 다음과갓다

康基福 李致淳 朴仁植 朴永

仁川府民運動

申請은卄五日限

【仁川】過般四萬圓의 總工費로서 工事中이든 仁川綜合運動場은 月前에 其竣工을 보게되엿스나 長霖으로因하야 開場式을 數次延期한것헤 마침내 來十月一日로써 開場式兼府民大運動會를開催키로되엿다는데 一般公開種目은 如左하다하며 一般의申請은 二十五日正午까지 府社會係로하야주기를바란다한다

町里對抗 八百米릴레ー
銀行會社官廳八百米릴레ー
靑年團 八百米릴레ー
一般(學生) 八百米릴레ー
靑年 八百米릴레ー
初等校男女學年對抗릴레ー
五千米

最后까지달니여라……勝利의月桂冠을차지하랴면

蔘茸精을服用하라……健全한肉體美는그대것이니

不老! 長生!

여름철더위와지리한 장마에지친몸을 恢復식혀야할가을은왓다 이때를일치말고時刻을다투어라服藥의첫가을을!

◎必欲長生者는
◎必飮蔘茸精하라

어것은 現代巨星頭山滿翁이쓴 蔘茸精讚詞中에 一句어니와 果然不老長生의 秘方藥은 우리손에 쥐여진것이외다

◉三神山의 不老草를꿈꾸어무엇하며 三千甲子董方朔을 부러워할것무엇이리요

◉病弱으로 苦痛하는이나 肺病으로 死刑宣告를바든이는 조곰도 근심하지말고 한시밥비 蔘茸精을쓰시요

一滴千金의 蔘茸精이야말로 健康을 防害하는 모-든病魔를물니치고 高速度로 新進代謝作用을하는것입니다

蔘茸精의特長

一、어떠한다른蔘茸劑와달나서 人蔘과 鹿茸의精分을最新藥化學的方法으로 露出配合하外에 有效成分을最適의高貴强壯劑를合理的으로 配合하얏슴으로
二、如何한體質에나 맛지안는일이업는것
三、如何한病弱者라도服用하면 顯著한效果가나타나는것
四、이약은液體인고로다른丸劑와가티잘체하거나 服用後에도卽時効力이나타나지안는일이업시 服用하면 卽時全身에퍼지여効力을보게되는것

九大醫學博士有効證明

이러한症勢잇는분은 한시밥비쓰시요!

◎夏節疲勞로因하야食慾이減退한데
◎肺結核初期나二期로苦痛하는이
◎陽氣不足으로因하야靑靑한老人이된이
◎胃腸病으로因하야恒常苦悶하는이
◎貧血症으로因하야얼굴이蒼白하며手足이冷한이
◎神經이衰弱하야不眠症으로苦生하는이
◎小兒發育不全 産前産後諸症

500瓦
250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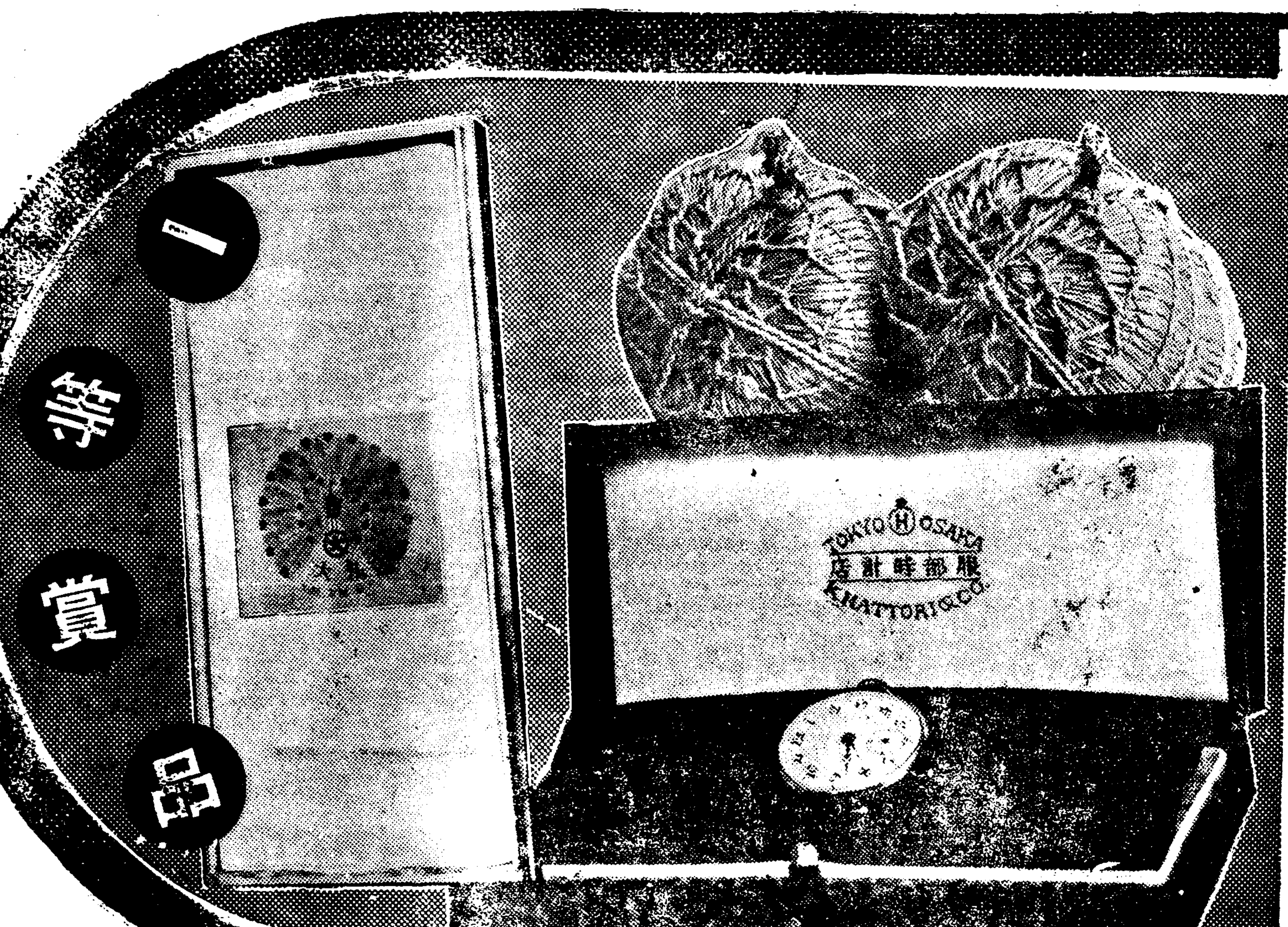
日鮮藥各有名藥店에서販賣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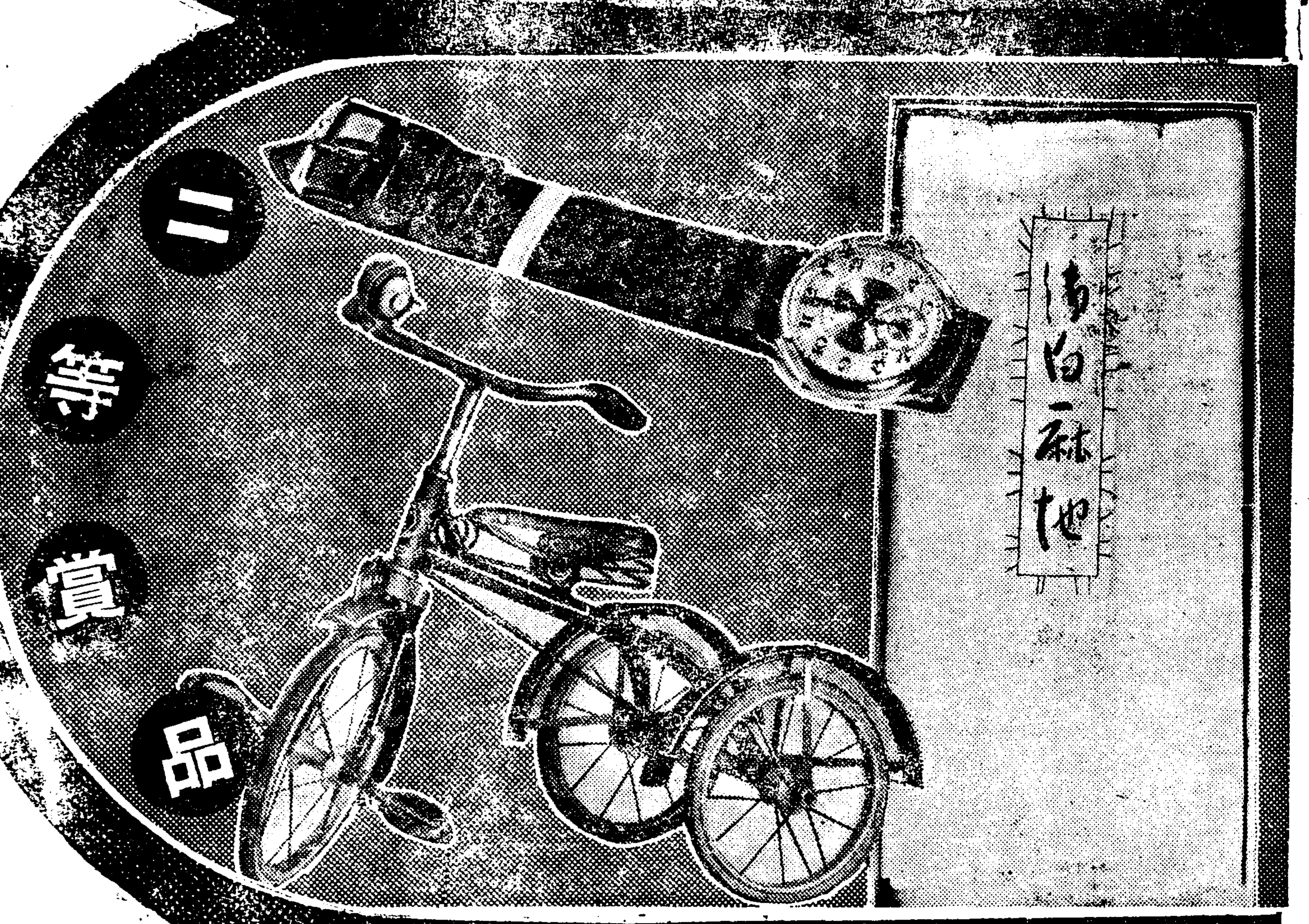
京城授恩町三二 鮮滿總發賣元 朝鮮商會 電光一七八五番

蔘茸精

高速度補血強壯劑

仁丹의必要期에 懸賞의絶好期!





仁丹二十錢分으로 白米一俵가當籤될

胃腸을健全하게한다 暴飮暴食其他모-든胃疾患等에依한胃壁筋의衰弱弛緩에對하야 仁丹의藥効는 實로 理想的으로 能作하야 極히 自然히胃壁의緊張力을 賦與하고모든胃腸障害를 退治하고 完全한消化機能을 營爲하게하며또腸作用을 調劑하야榮養攝取를正常하게하며保健의核心인消化器와 其機能을全般的으로保護한다

頭痛을解消한다 感氣、睡眠不足、心身疲勞、便秘等으로생기는 頭痛、眩氣、氣分의憂鬱에는即座에서 仁丹을服用하는것이必要。仁丹의即効는 곳 頭重과憂鬱을 解消하야明朗爽快하게 氣分을回復할수잇다

精力榮養을旺盛히한다 仁丹에는貴藥朝鮮人蔘의가장精選한엑쓰를包含하야增健과蘇活에 有効한作用을하고 또 近來 特히 推奬되여잇는 비타민을 賦加하야 消化와榮養吸收에効果잇는 一方各種脚氣에는 有効한 巧驗을需求하야 이綜合的効果는 全身的으로 生活機能을振作한다

銀粒仁丹藥價

御試用分	(百五十粒)	十錢
富士容器附	(三百二十粒)	二十錢
滿洲容器附	(四百粒)	三十錢
家庭容器瓶入	(九百粒)	五十錢
御徳用分	(一千粒)	五十錢
御徳用瓶入	(二千二百粒)	一圓

알기쉬운懸賞의應募法

問題 只今가장人氣잇는銀粒仁○

答案 右○中에너허서適當한文字를仁丹入定價二十錢分의外袋에記錄하야四匁마다三錢切手를貼付할것 (郵送不足은受付치안는다)

答案送附先 大阪市東區玉堀町 仁丹懸賞係

期間 自八月十二日 至九月末日 五十日間

抽籤發表 十月中旬

賞品

一等 白米二俵 白羽二重生地 全側腕時計 右の内お好み一品 拾名

二等 白麻生地 子供用三輪車 クローム腕時計 右の内お好み一品 壹百名

三等 シャープペンシル 入浴用品一揃 御化粧用品詰合 右の内お好み一品 壹千名

四等 粗品進呈 壹萬名

大阪・森下博營業所

구취가몹시나면 월태화용도헛것
원인을 아라속히 고치자 — 출세하는데 큰영향

련애시인 「오뷔-드」의 「련애술」이란 책속에는 여러가지 술법이 만히쓰여잇스나 그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구절은 「호사병과가티 무서운 구취(口臭)는 정떠러지는 첫째원인이된다」 고 하엿습니다

이말은 하필 연애에한해서경고되는말이 아니라 널리 일반적인 사교에도 경계되는 구절이라고 할수잇습니다 아모리훌융한외장과 아릿다운얼굴에 세상에서 제일간다는 향수를 뿌리고 분을 발은다 하더라도 입에서 악취가 나는사람은 연애는 고사하고 교제도 할수업게 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옛날로-마의 시민들은 입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을 비웃하야 식전에 차저온 유태(猶太)사람 이라고 하얏습니다 그러하야 온갓약을다 써가면서 입냄새를 업새버리라고 꽁을드려도 오날날까지 그와가티 집새할 악취는 고칠길이 업섯습니다

입에서 나는악취는 자긔자신으로서는 알지못하고 자긔와제일친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풍기게되는것이니 세상에 제일가까운사람은 부부간이나 애인일것입니다.

아모리 동여다려서 날뛰든연애도 이악취를 맛게되면 "크레오파트라"도 양귀비도 다실타하고 천리만리 달아나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원인모를 소화과 실연이 모다 이악취에서 비저진 벽에 안인가합니다 이러한 가장비사교적이며 명랑스러운 악취는 여러가지에서 원인되어잇는 것입니다 코스병、소화기병、호흡기병、위병등이 원인되여서 그것이 구강(口腔)을 통하야 냄새가 나게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제일만흔것은 치아 충치등의 니병인데 악취나는사람수효의 구십퍼-센트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니빨이 하이야코 깨끗한것을 미용의 제일조건이라 함은 이모든니병으로 말미아마 악취가나는것을 방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위가거륵한것이 속하여서 홀을내음새가 나는것도 잇습니다

그러므로 의복과화장을 훌상하기전에 위선 입안청결을 먼저하야 악취가 나지 안토록 그 원인을 솔펴서 치료한다음에 비싼향수도 뿌리고 조흔분도바르며 류선형양복도 입도록하지 안흐면 사교의 성공과연애는 아조 단념하는것이 조흘줄압니다 그뿐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빈빈한 교섭으로서만 살아갈수잇는 현대에잇서서는 누구나 여기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우유를먹을때

우유를먹으면 설사하는분이잇습니다 이런분은 우유에그람(한홉)에대해서 석회수(石灰水)이십그람을 타서 잡수십시요 석회수를타면 강한알카리성이 되기때문에 설사를안케됩니다 그와반대로 우유를 먹어뒤가조해지는분은 우유에 물엿(水飴-조청)가튼것을 녹여먹으면 그런일이업습니다.

가을바람! 머리우에잔물시걸

● 吳淑嬪

겨는여기서 녀자(女子)들의가을위에오는머리에 어떤웨이브를하는가를 잠간말씀하겟습니다.

一、마-셀웨이브

「마-셀」은 불란서사람의일홈입니다。 머리지지는법을 처음발명한이인데、이웨이브는지금서양은물론이요 세계어느나라에서든지 류행하는법인데、「고데」를 알마치달구어가지고 한번머리를집어다가 그대로고데를지르트리고 또그러케하고하기를 여러번하는동안에 「웨이브」가 순하고밋근하게나옵니다。

다시말하면 산(山)이잇고도 동굴고 골(谷)은 놉히들어서 다른웨이브보다 그중천잔하고 의젓하고 운치가잇습니다 「고데」를 뜨겁게달구지 안는까닭에 머리털이끈허지거나 바사러지는 일이업는것이 무엇보다도 특장입니다 우리녀자계에도 미구에 이웨이브가 류행될것은 틀림업는일입니다。 그대신 이「웨이브」는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모델—신경자
미용사—박정희

잠잘시각

◇두서너살된 애기는 저녁여섯시부터 일곱시까지의사이가좃습니다。

◇네살부터 여섯살까지는 밤일곱시부터 여덟시사이가 좃습니다。

잠잘들게하는데

◇것을 흘러재운다든지 엽혀서 꺼고자버릇을 하면 못씁니다 절대로 그런버릇을 애기에게 길들지 안케합시요

◇잠자는방에 작난스감이나 그림책을 디려노치마십시요。 거기에 마음이끌리면 잠이잘 못듭니다。

◇잠자기전에 너무재롱을피운다든지 또는 꾸지람을하든지하면 애기가 흥분이되어잠안옵니다 그러므로 잠잘시간이오거든 미리안정을 식혀다가 재우십시요

◇저녁먹은뒤에 가벼운 운동을 식힌다든가 또는 잠시자리에 드러가기전에 목욕을식혀서 약간 피로한듯하게 해가지고 재우면 조흡니다。

◇무엇을 먹이고나서 곳 재우지마십시요 엇재든지 음식먹은시간과 잘 잘시간 그사이는 상당히 떼잇서야합니다

잠자는시간

◇한살되여기는 열세시간
◇두살—열두시간반
세살—열두시간
◇네살—열한시간반
◇다섯살—열한시간
◇여섯살—열시간반

어떤동시인은 자야좃든한살이 될수잇습니다

낫잠

◇몸안애기는 하로에여러번、 다섯시간으로부터

◇세살되여기는 오전오후에 각한번식、시간으로는 두시간내지세시간

◇서너댓살되여기는 하로에한번、한시간내지두시간쯤이 좃습니다。

귀동냥

푸성귀를듸칠때 물에씻지말일

푸성귀에 영양가치가 만흔것은 누구나 잘아는바인데 그중에도 「시금치」가튼 채소는 영양분이 퍽만어 거이 약으로도 쓰는편입니다 그런데 이런영양가치가잇는 푸성귀를 듸칠때는 물을 미리 펄펄끄려 거기에다 솟치너어 얼른듸처내십시요。 그런뒤에 그것을찬물에 씻지말고 그대로 도마우에노아 식은다음에 그대로써러서 접시에담도록 해야합니다。

왜그러냐? 듸친것을 물에다 그면 영양분이 모도 물에녹아 버리니까 결국은 적게가를 먹는셈이되니까요?

노래와 춤을 시른 『로메리아』車

방금 형용간에 서로 싸홈질이나서 피를흘리고 잇는 서반아란 나라。「카르멘」으로 이름난 정렬의 서반아란 나라! 지금쯤 수선통에 엇전지 몰라도 『세빌리야』 지방에서는 때때로 종교적의미의 『피크닉』이 년중행사처럼 되여잇습니다 이것을 『로메리안』 이라고 부릅니다 이때가되면화항하게차린 소구루마를타고 들노리를떠납니다 맨아페는 초불로장식한차가 압장서고 그다음으로세빌리야의 노래와춤으로꼴고잇는젊은남녀들을 시른차가 한대、또한대、또한대……이러케행렬을지어 가는것입니다

잠잘잡니까

덕의애기는

잠잘자는비결

애기들은 먹고놀때보다 잠을 포근히 자는동안에 못적못적자랍니다。 잠을 잘자면 별도 안걸리고 건강해집니다。 그럼 어떠케해야 잠을 잘재울수잇을까?

◇될수잇는대로 조용한 방에 재우십시요。

◇방을 어둡게해가지고 재우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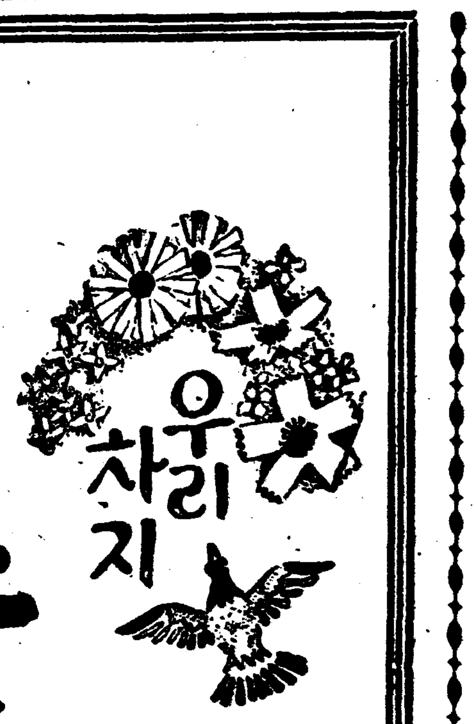
◇반드시 혼자자도록하시요。 아직 그럴수업는애기는 버릇을 들여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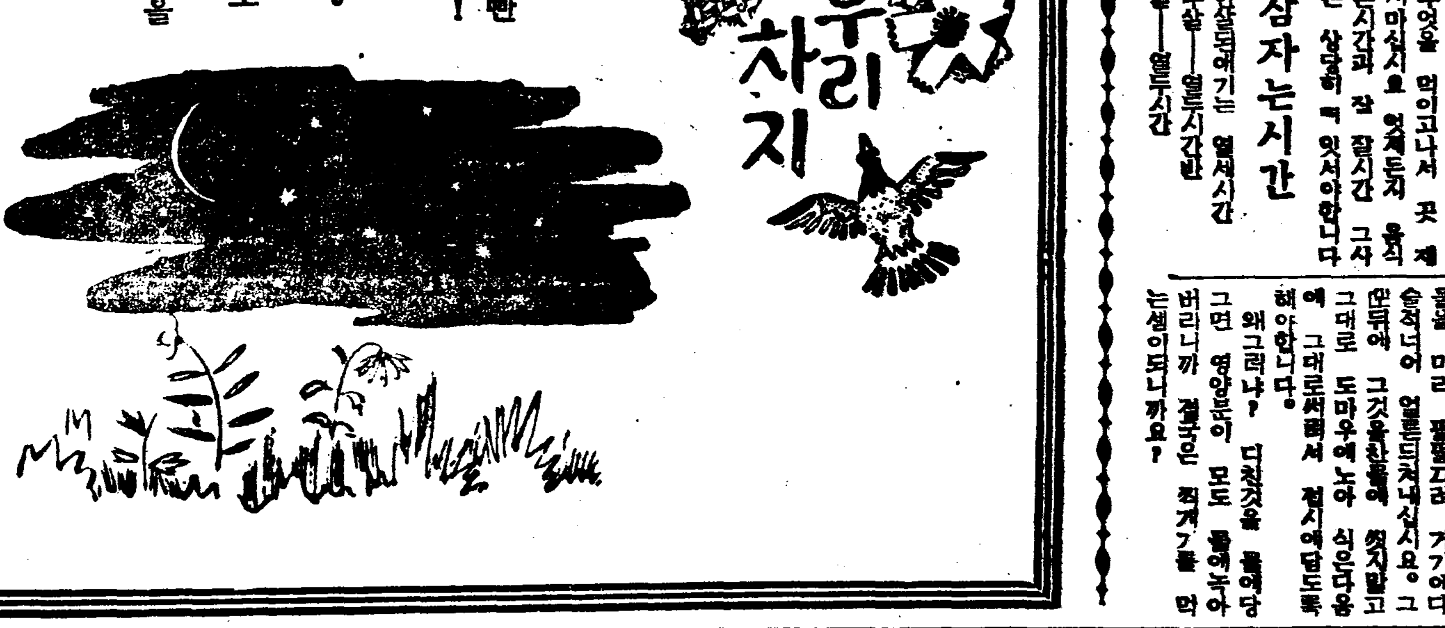
◇이부자리와 자리옷은 가볍고 부드럽고、충분한것이 좃습니다。

"별"

별、
밤새도록 잠안자고 빤작이는 죄그만별아!
이슥—하야 나리는 밤이슬、
너는 촉촉이 젓겟다。
내일은 아침햇볏 소사올라도
숨지를 말고
부듸、밤에 젓신네옷을 말려입어라。

(곰사람 오장환)





女人劇의밤上演脚本
"넨의悲劇"

존·메이스필드 作
朴龍喆 譯

梗槪

「넨」은 시골개집애입니다 그의아버지는양(羊)을 훔쳣다는혐의으로 애매히 사형을당하엿습니다。 어머니도아버지도 업시 고아가된넨은 외삼촌인「파-캣편」의집에 와잇게되엿는데 그는그동리의 젊은사람들가운데서 가장뵈한사람들에게 귀염을밧는사이엿습니다 「딕」은소위사랑하는사이엿습니다 아즈머니되는「파-캣편」부인은 「넨」을 심히미워하고 「넨」의 가시로 벡여고미워하든중 「넨」과 「딕」의사이를 자긔딸「제니」와딕과 결혼시키게 위하여서 그딕에게 「넨」의 아버지가 사형을당햇다는비밀을 말해주고「딕」을「제니」와 약혼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런후 만찬회에 모인손님들에게「제니」와「딕」두사람의 약혼을피로하고「넨」을 여러사람들압에서 모욕합니다

그런데 양을도적한 진범인의 자백으로「넨」의 아버지에게 잘못판결에대한 배상금이「넨」의손에쥐여지게됩니다「넨」은 오백원이란 적지안흔돈을 바더들엇습니다 이미아즈머니의 화려와「제니」의 배반과「딕」의 부박에락심하고 세상을 버리려는「넨」에게는 액수만은돈이 도움이되는것이아니라 세상에대한 증오감을 더강하게하여 주엇슬뿐입니다 다더「딕」은 이러한 심정을가진것을헤아리지 못하고 그의미모와 돈의욕심이나서 다시달큼한말로 가까이합니다 「넨」은「딕」를한칼에 찔러죽인후 자기는때마츰 밀려드러오는 만조에몸을던집니다

第一幕

舞臺 세번눈강까。 가난한소작인의집부엌。「파-캣편」부인과「제니」는 만찬회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합니다「파-캣편」부인은「제니」에게「넨」의 아버지가양을도적질을해서 사형을당하고 「넨」은자기집에와서 어더먹고잇다는 말을해줍니다 그리고경상에걸린넨의 웃저고리를보고 그속에잇는「딕」의연애편지를 끄내어자기주머니에너코 그저고리는 구정통에다 집어던집니다

「제니」는 아버지가 도라오는것을보고 술잔을 끄내다가 잘못하여 깨트립니다 오십이넘은「파-겟턴」씨는 들어와서 정신을 먹으려다 자기술잔이 깨진것을 보고

「할아버지께 물려바든 귀한잔인데」하며 화를 냅니다。

「파-캣턴」부인은제니라는일홈을 드려내지안코 모호히하여 는 대명사를써서 「그애」라고 합니다。

「넨」이 그것을 깨트린것가티맨듭니다。

「넨」이 우층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말끗마다 미움에찬말을하는 아주머니에게대한 넨의 태도는 몹시 불쾌합니다 그집에서 한사람 오직「파켓턴」씨만은「넨」을 신용하여섯스나 술잔을 깨트리고도 정직하게 고백하지안는다고 오해한 외삼촌역시 이제는「넨」을 미워합니다。

「파켓턴」부인은「제니」를 끄득여「넨」이「딕」을 사랑하는 사실을 밝히게합니다。 감정이 별로 예민하지 못하고 감각역시 무듸인「제니」지만 교활한 그의 어머니의 충동에 넘어가서「넨」에게 친한것가티하여「넨」의 마음을 빼아「넨」이「딕」을 사랑한다는 말을「제니」에게 실고(實告)합니다

第二幕

舞臺 一幕과갓다。

「넨」은밤에손님들을위하야 음부즈런히 치고잇습니다 이때마츰「딕」이드러옵니다 「넨」과「딕」은 아모도업는 틈을타서 사랑을 속삭입니다「딕」은 마지막엔 혼인하기를 청합니다「넨」은 사형을당한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말을「딕」에게 하려고하엿스나 참아 못한채로 그의 청혼을 밧습니다 밧게서 떠들석하며 손님들이 들어오고 웃층에서「파-겟턴」부인과「제니」가 내려와서 손님을마지합니다「파-겟턴」부인은 손님들을 뒷방으로 다보낸후「딕」을 은근히 불러「딕」의 아버지가 분재를 해주겟다고하더라는 말을해줍니다 그런후「제니」에게 청혼하라고합니다「딕」이「넨」에게청혼햇다는말을들은「파-겟턴」부인은「넨」의 아버지는 도적놈이오 사형을당햇다고 합니다。

마음이굳지 못한「딕」은「넨」을 버리고「제니」와 약혼하기를 승락합니다「파-겟턴」네는 손님들에게 두사람의약혼을피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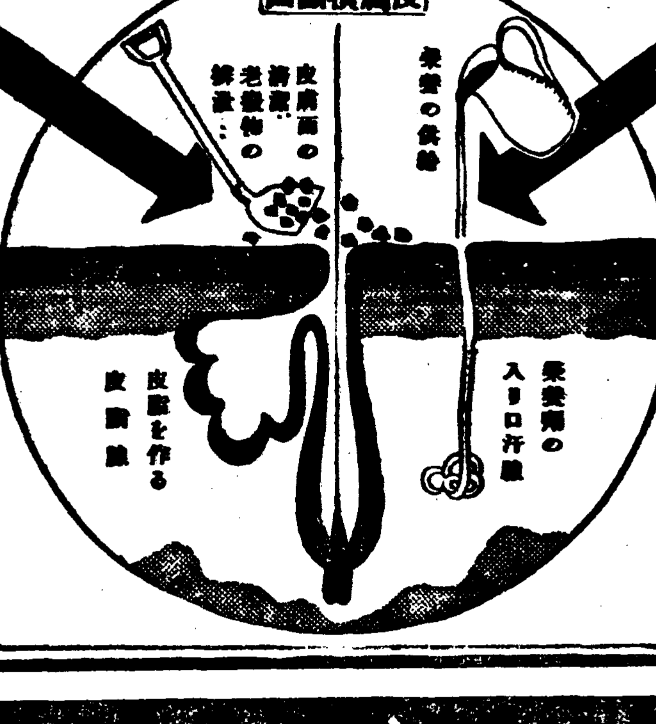
第三幕

舞臺 역시갓다。

오십여년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일흔후 그의무덤을 보살펴주고 이리저리 양금을 켜고다니는 반미친 늙은이「개퍼-」는「넨」과 마조안저서 헷소리 하듯 자긔 사랑하든 녀자가 죽든 때 이얘기를해줍니다 마지막하망이엇든 사랑조차빼앗기고 세상에 아모것도 바랄것 업는「넨」은 그노인의 충동으로 죽기를 결심합니다 이때「제니」는 더러운 접시에다가 죽은 양고기로 만든 만두를 담어 가지고 들어와서「개퍼-」에게 줍니다 늙은이를 알고 불상한 사람을 동정해줄줄 아는「넨」은「제니」의 인정업는 심뽀가 얄미웁기도햇거니와 보다더 자긔 애인을빼앗서간 그를볼때 그의입에서는 저주의말이 흘러나오지 안흘수업섯습니다 눈을 똑바로 노리고 드려다보며「제니」로하여금그 양고기만두를 먹게 합니다「넨」의 악에바친 저주의 말은「제니」로하여금 정신을 일케합니다 이때 밧게서 소리가 나며「드류-」목사와「딕」내외가 드러와서「넨」을찻습니다 그들은 양을도적한진범인의 자백으로「넨」의아버지가 루명을버섯다는 것을 진술하고 배상금으로 일금오백원을갓다줍니다 그것을 바든넨의가슴은 기쁨보다도 쓰라림에 찻는대 그돈을 가저다주는태위는 차듸찬 태도로 대합니다 「딕」은 더러운 정중이떨이라는 루명을 벗고 큰돈을 가진「넨」에게도 다시도라옵니다 이럿게 부허한「딕」의태도를 가증히 생각한「넨」은 세상에 자기와가튼 녀자들을 구하러「딕」을 죽인후 바랄것이업는 자신도 세차게밀려오는 조수를 향하야발을 옴김니다。

(이각본은 오는 이십이일밤、직업녀성구락부주최로 부민관에서 상연합니다)

お肌の掃除 — 榮養の供給



皮膚의淸潔

을保持하는것도 非常히緊要한것으로 이에는外部的으로는때 먼지等을 除去하고 內部的으로는 老廢物의 迅速한排泄 이두作用을完全히遂行해주는것이 마스타-의콜드입니다 動物性가살결의 汚濁을除去함에 最適하게만드럿스므로 산듯하게 때를除去해주며 스킨호르몬性劑가 老廢物을內部에서 나오게합니다、皮脂孔等도지웁지안케掃除하므로여드름等의 念慮도업시麗艶한健康肌로될수잇습니다

直接으로皮膚細胞에

作用하는基本的皮膚榮養劑스킨호르몬性劑가마스타-콜드에配合되엿습니다、이것은皮膚細胞에곳浸透하야 榮養과活力을與하고老衰함을防止합니다、그것과意外의이合하면 皮膚의共生을防止하야 榮養이完全한비타민D로變化하는特殊美顔劑도配合되여잇스므로 그綜合効果는참으로놀라웁고 마스타-콜드로朝夕輕하게맛사-지하면●살결이생생한彈力을엇고●여드름等의皮膚障害를防止하야靑春의 美를保持합니다

콜드의 使用法

아츰·外出後·就寢前等에少量의 마스타-콜드로輕하게얼골을문지르면 개끗하게씻서집니다 다시한번손끄드로 조곰빨리서맛사-지하고 거츠른性이잇는은 콜드가좀남을程度로 脂肪性이잇는은잘씻서버리면됩니다

マスタークリーム
마스타-콜드크림

消化薬として真に唯一の……タカヂアスターゼ

發賣以來三十有餘年、其品質에 잇서서……그効果에 잇서서……世界學者가研究하고……널리應用되는 點에잇서서……他에比할것이업다

다가지아스타-제中에發見된 各種의消化酵素

アミラーゼ、トリプシン、リパーゼ、マルターゼ、ラーブ、エレプシン、レチターゼ、フォスファターゼ、スルファターゼ、ウェラーゼ、ヘキソーゼモノフォスファターゼ、イヌラーゼ、スタレイナーゼ、フェナセウール酸分解酵素、フェノールオキシターゼ、配糖體分解酵素等々

澱粉消化性能上의特長

一、澱粉糖化力强大 攝氏五十五度의溫度에잇서서一時間에三百倍의澱粉으로作用하야 百四十五倍의糖分을生成하는것이標準이다

二、効力永久不變 澱粉糖化力-는 病院에서十七年間保存한 다가지아스타-제에對하야 澱粉과蛋白質消化作用을 檢査하야全然不變인文獻이다

三、胃腹內耐性의强大 我國을비롯하야米、獨消化機能學者、大家가研究하고그結果는酸아루카리에對한耐性이强하고臨牀上胃腸內에서 十分그効力을發揮할수잇는것을認定한다

四、調味料와嗜好品과의關係 食鹽醬油等의 適量存在는 다가지아스타-제의澱粉糖化力을顯著히促進하고또茶、코피紅茶等을먹어도其効力은阻害되지안는다

다가지아스타-제의 應用方面

一、消化不良防止의目的에 例를들면過食 運動不足、宿醉等의境遇………

二、消化不良에因하는胃腸障害 例를들면 急性及慢性의胃腸가다루(呑酸、嘈囃、噯氣、曖氣、胃部膨滿 食物停滯感等) 異常醱酵性下痢또는便秘胃酸過多症等

三、消化機能의減弱 또는이것이잇는듯한境遇 例를들면 唾液分泌量의減少及唾液消化酵素의減量이認定되는것 膵液의트립신과리파-제作用의減少를보이는疾患 即 無、發熱時糖尿病、肺結核、脚氣及齒牙疾患의過剩不食欲 脚氣疾患等等……그應用方面도자못廣汎하다

粉末、錠劑各種
各地藥舖에서販賣함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學藝

最近의 批評的傾向
—批判과 中傷—
(四) 白鐵

나의 人間論을 抽象論이니一般論이니 非難해보는것은 林和君等의 數年前부터의 趣味다 近間에와서 林和君과 그流派가 나의 人間探求論을 攻擊하는데잇서도 그것은 나의 論斷하는

人 間이 抽象的이고 一般的이고 架空的이라는것을 證明하려고하는 努力에 全力을 集中하고 잇는듯하다 하나 여기에 對하야 林和君의 暗示를 빌면 君等이 나의論中의 人間을 抽象的一般的이라고 指摘해보는것 或은 그人間이 「포이에르바하의人間이라든가 또한 내自身을 「포이에르바하스트」의後裔라든가를 말해보는것은 實로 君等의自由다 君等이 任意대로 어떠한것을 가지고 나의 人間論을 命名하든지 그것은 君等의 任意와 自由意思에 依하야 決定되는 까닭이다 하나 君等이記憶해야 할것은 君等이 그個人의 曲解와 私感에 依한 批評에 依하야 任意대로 나의所論을 求證하는것이 君等의 自由인것과 가티 立場을 바꾸어볼때에는 나의 人間探求論이 君等의 要諦에서 超越하는것도실로 이편의 自由가아닐수 업다 君等아 나의 人間探求論을 一般論이며

抽 象論이니하는範疇과는아무關係도업시 나의所論은 얼마든지 現實的이고 具體的일수잇는것이다

大體 人間을 몬저 一個의 客體로 機械化하고 一般化한者가 누구냐?고 反問하면 林和君은 이 내가「맑스」의 그機械的唯物論者에 對한 批判의 句節을 再次 引用할는지모른다「맑스」가 十七世紀唯物論者들의 機械論에反對하고 人間의 主體性을 指摘한 事實쯤은 林和君이 新奇히 指示하지 안터라도 누구나 周知하는 事實 이다 여기서도 必要하다면 林和君을 滿足시키기 爲하야서라도 그 「도이체·이데올로기」中에서 林君의 引用句보다 一層丁寧한句節도 引用해올수잇는일이다 하나 도이체·이데올로기의 文句를 數百번 引用한다면 그것이 新興文學의過去에잇어 人間에對한 態度와理解의過失을 어떠케 除去하는것이될까?「맑스」가 人間에 對하야 어떠明言을했든 그機械的唯物論에比하야

辯 證法的 唯物論이 哲學의 人間的理解에 어떤 巨大한 功績을 남겻든 그것이 直接文學의 功績이 아닌以上 그것은 文學運動에잇서 過去의新興文學者들이 人間에對한 맑스의 遺訓을 얼마나 背叛햇는가 하는 審判한反證은 되지언정 그것이 旣犯된過去프로文學의 機械的傾向이 批判될것이아니라는 證據는 되지안흘것이다

더구나 그것이나의 人間探求論을批判하는 便宜한 條件이될理는 萬無한일이다 웨그러냐하면 本來에잇서 나의人間探求論은맑스의 人間에 對한理解의眼에서 그것을 反對하지 안흘뿐아니라 嚴然히 그것을 攝取하면서 出發햇든까닭이다

내가 反對하고 出版한것은맑스의人間觀에 對한것이 아니고 人間에對한프로文學의 機械的傾向에 對한것이엇다는것은實로 明白한事實이엇다 그것은맑스의 人間理解와 그評價에對한 畫等한

敎 訓이잇음에 不拘하고過去의프로文學의 人間을 正當하게 理解 描寫하지 못할뿐아니라 人間을 類型化하고抽象化하고 公式化하고 槪念化햇든까닭이엇다 新興文學의 固定化類型化와함께 그것이 人間을 그소위 客觀이라는 固定된 基準과 公式의 準備에依하야 人間의 主體的實體性과 特殊性을 얼마나 無視해왓는가 하는것等에 對하야 나는 屢次 그過誤를 指摘햇든까닭에 여기서 다시 그것을 反覆하려고하지 안커니와 最近 林和君等이나의同批判을 새롭은 文學的傾向에對한 誹謗的가리 誇張하고 잇는 까닭에 그러批判은 유독히 나만이 아니라 의례히 林和君等이 崇拜해야할「고리키-」의 論文中에서도 사베트作家들의 通誤에對한 批判文句中에도 이와 類似한것이 잇다는것을 여기에 一部分 引用하려고 한다

現代思惟의 現實的形態
(五) 金基錫

우리들은「生」이 行爲임을보앗고 行爲가運動임을보앗다。그런데 行爲는 運動이면서도 단순한運動이아니오 行動가튼 意味를 가지는것이 아닌가。사람들은 行動을 實踐이라고가르친다 이實踐이란 무엇인가。사람들은 實踐을 生産 또는勞働으로 밧고아 부른다。이生産및 勞働이란무엇인가。「生」은 분명히 단순한 觀想이아니고 行動이요 實踐이요 또나아가 生産및勞働까지를 意味한다。그러대 이行動이란것은、實踐이란것은、生産또는 勞働이란것은。

自然은 분명히 부단한 運動을 經過한다。그러타고해서 이때自然이 行動을가지고 實踐을가지는것인가。우리들은 어디까지든지 運動으로부터 行動 또는實踐이란것을 구별하야 내이지안허서는안된다。行動은 어떤主體의 行動이면서 부단히 그主體를表現하는것이 아닌가。客觀的運動에대한 主體的行動。行動은 이主體性에잇서서 기피생각되어야한다。客體와도 마조서는 主體의 世界가업서서는 안된다。自然과 마조서는「生」의 世界에서 이러나는 또그것이 이르기까지 一회의 運動은 모도 行動이라고 불러진다。

行動은 嚴密한意味에 잇서서 본대 主體的行動이 되어야한다 主體的行動 이것이 자긔를 實踐으로限定하면서 生産및勞働가튼것을 그속에품는 어데까지던지「生」의 意味를가진 運動이 아니면 안된다。그러대 이主體는 무론 客體에대한 主體이며서 그것은 부단히 客體와마조서고 客體에대어드는것이 되어야한다。客體로서의 自然에대한 부단히 마조서고 대어드는 主體란 어떤것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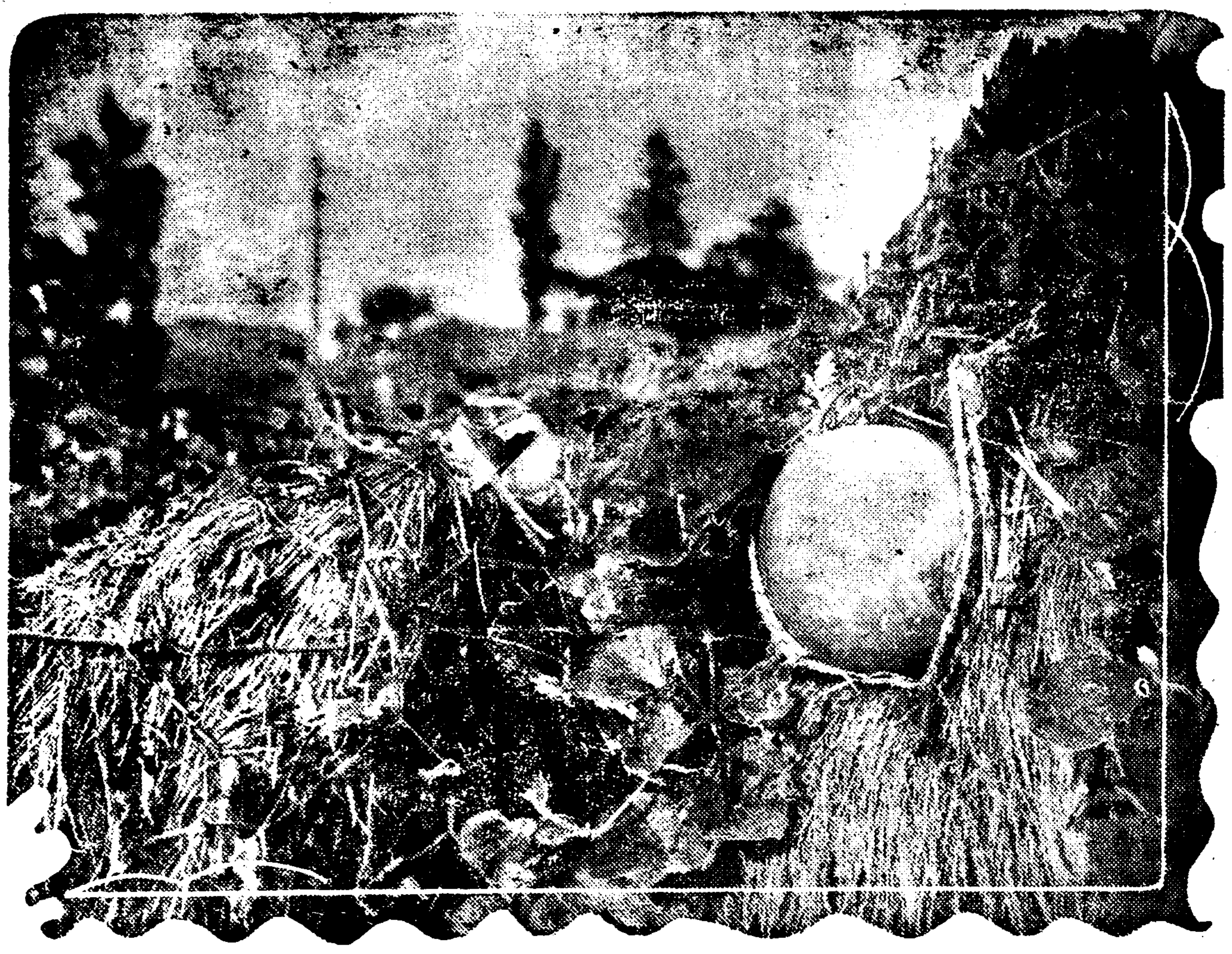
그것은 自然에서 찾지못하는 어떤性格을 가지지안허서는 안된다。自然이 가지지못한것을가지고 또 自然이가진것을 가지지못한 그러면서도 가튼 存在의世界 運動의世界에 싸히는데서 서로同一한 運命에매인새로운秩序가 아니면안된다。

自然이 단순한運動만을 가질에反하야 이行動또는 實踐을가지는 한개새로운 秩序란 어떤것일가。이새로운秩序는 自然에대하야 자기를 歷史的社會的인實在로限定한다。歷史的社會的實在로서의「生」의世界。아하,우리들은 어느사이에 이생각하기어려운「고비에다다럿다。歷史性의構造、社會性의構造。이것은 오늘의思索하는이들이 가장만히어루만지면서 기실 가장멀리 집어옴겨天는한개 남어잇는일감이아닌가

우리들은 압에서 理性의「生」속에서 한개소임을 맛는다는것을말햇다。그리고 우리들은「生」의世界가 主體의意味를 가지면서 그자신을 表現하는 行動實踐가튼것을 가진다는것을 보아왓다。

이 理性과行動이란 엇던聯關을 가지는것인가。理性과行動、또는 思惟와實踐。우리들은 지금「生」構造聯關을 생각해야하는자리에 이르럿이아닌가。理性과갈린行動이라것이 잇슬것인가。思惟와헤여진實踐이라것이、잇슬것인가。運動의論理에사로잡힌 오늘의사람들은 이런것이잇다고 옥일지도 모른다。그러나「生」의 世界를 主體의 世界로 規定하는한에서 主體의 世界를 表現의世界로 理解하는한에서 이단순한 行動및 實踐은 기실眞實한意味의 現實的인 行動또는 實踐이 되지못한다。現實的인 行動또는 實踐이되지못한다。現實的인 行動이나實踐은 어데까지던지 理性또는 思惟에대한 聯關을 가지지안허서는 안된다。

漢詩募集
題…白頭山
押…峯
限 九月末日
(薄謝進呈)



素朴한 가을

白頭山探險의 科學的成果
白頭山의 地形的考察
—徒步探險의 經路에만 限하야—
(一) 姜在鎬

白頭山하면 얼는생각하기 쉬운것은 朝鮮에서 第一노픈山、即海拔九千五百餘尺(二七四四米)이라는 垂直的高度일것이다。그럼으로 海拔의三角山이나 關東의金剛山보다 훨신놉고 중량較한山이것지 흥은 白頭山의成因여 火山인것을아는니는 저富士山보담 나즌山이요、漢拏山보다 좀노프되 그擴形은 擴火山의그 모양이겟지하는 先入見이잇슬것이다 그러나 白頭山은 노피그것보담 廣袤그것이 이山의 한 特異性이안일가생각한다 그러면 白頭山의 넓피는 얼마나한가 것이다 白頭山은 火山인 岩石의分布로보다면 故小藤博士의命名한 釜島高臺의一部即南北千餘里 東西六百里에 퍼진 一大玄武岩臺地가 이山의境域이될것이다 다시말하면 白頭山은 滿洲大陸과 朝鮮半島를 빗그러매제로 東亞에鎭座한 一大高原山岳地帶이다 그러나 이小論에서는이 白頭山의地貌를 論述하려는바이나요 다만 今番探險臺路即徒步하기始作한 豆滿江上流農事洞에서 白頭山頂、山頂에서 鴨綠江流域胞胎里까지 踏査地域의 白頭山을 地形上으로 考察해보려한다 따라서 이小論에서 어들 結論도 局部的材料의 所致임것을 미리附記해둔다 順序로서 白頭山의生成과 그地質一般을 槪述하기로하자

白頭山의 生成과 그地質一般

우리는 아즉 白頭火山脈이 出現하기以前을推想한다면 이附近은 山가든山이라고는업고 다만 緩波狀으로起伏하야 低靑한 高臺로 되어잇섯슬것이다、오즉南方朝鮮側에잇서서는 雪嶺의連峰이좀눕게 그目標를 橫置하엿슬뿐이엿다、此時를當하야 現今咸鏡南北道境上에 長大한 地割이 생기여 그裂罅를通하야 熔嚴된 岩石即岩漿은 噴出되어부터 活然噴出하기始作햇다、南으로는胞胎山에서 南雪嶺에至하는 約一百五十里되는 火山帶를構成하고 北으로는 圓頂가튼形狀으로 塊座한 白頭火山이形成되엿다、이 兩火山中間에 小白山及間白山이 隣起햇다、岩石은 어느것이나 同一한것으로 보기드믄鐵類의 알칼粗面岩으로 되어잇다 우리가사는 이地球上에는 아즉이와 가튼 大量의岩石으로된 알칼熔岩의 火山脈을 볼수업다한다。白頭山을構成한 알칼粗面岩은 石學上珍品으로서 他國에는類例가업다한다。山成理學士는 研究의結果 이粗面岩을「白頭岩」이라고 命名發布한일이잇다。이岩石을構成한鑛物은 어느것이던지 珍奇한 成分으로되여잇는데 玻璃長石、에질石、에질輝石、曹閃石、三斜閃石等이 主要成分이라한다。山의形相은 岩石의種類에 따라매우다르다。玄武岩의岩漿은 물과가티 流動하기쉬워서 平平한山火臺地를만들고 粗面岩은엿(飴)모양으로 粘着性이豐富해서 地下의瓦斯나 溫泉가潮大해잇스면 듬구스러한 塊狀火山을形成한다

白頭山本體는 알칼粗面岩으로된 塊狀火山으로서 代表的이엿섯다(但現今은陷落火口로되여 그性質을이럿다)窮隆形으로 膨上한 熔岩의表面은 寒冷한大氣에 接觸되에 急激히固結되여 빼-루遜가튼 黑曜石의 皮殼을맨들고 內部는 緩慢히 冷却해지며 粗目의粗面岩을形成햇다 兩者의사이에는 粗面岩黑曜石의 砕入한流紋狀粗面岩帶가잇다、이와가티된 塊狀火山은 溫度가遞下함에 따라서 山全體로서의容積이 縮少해지고、特히 圓頂部에잇서서는 果然 圓筒形의 大陷落이 이러낫다。이것이 今日 우리가 볼수잇는 天池의前身이다。그후얼마뒤 朝滿地帶는 한거번에 玄武岩流의 來襲을바다 一帶는火海를 일운일이잇섯다。白頭山、間白山、小白山 胞胎山等은 恰似히 섬(島)가치 이우에 浮出되고 胞胎의大部는 火海의 海底로드러가고마럿다。

遺懷六首 依放翁韻
先進 梁柱東

人間天又雨、鎭日掩柴扉。兒含洋菓喜、妻市海魚歸。隱几有餘味、齷名無是非。吾生眞一夢、何恨世相違。

讀書三萬卷、自笑一書生。謾抱經綸志、猶存翰墨情。半世人將老孤吟鬢未淸。不若尊前醉、尊前事事平

舊句、故作嚇人語、一笑。

人生貧亦樂、何妨細炊煙。庭容三轉步、屋漏半如船。遺傳顔氏後、心在羲皇前。飯畢仍無事、伴兒木馬牽。

蟋蟀鳴床下、初伏夜漸長。淨尊正有味、野稻已登場。頹覺田園夢、似聞籬落香。今年歸未得、心思復茫茫。

余之故里、名尊灣、故第三句及之。

少年頗任俠、自許一身輕。經綸違素志、文筆賤虛名。縱橫成底事、三十寓西京。抱琴中夜起、慷慨不勝情。

睡下草三尺、主人偏未除。敎兒看新說、焚香念古書。聊聊鷄餘顔、渺然夢平事、生計未全疏。

讀者室

◆蔡奎煒氏의現住所를아시는이가게시거든 朝鮮日報讀者社交欄을通知하여주시면 大端히感謝하겟습니다 江陵南谷에 李白波

◆全鮮讀者께 告합니다 生의友人은 何今까지 未婚하고잇는바中等科二年以上程度로서 二十歲未滿의女性을求합니다 生의友人은 評論界를希望하며 오로지半島의 基督敎界에서 活躍코자하는 씩씩한크리쓰찬으로 中等四學年에서中途退學한후 早稻田政經講義를專修한 二十一歲의靑年입니다。意向이잇스시면 곳左記住所에問議하시오 (遠地歡迎) 咸南新昌港三三三 金逸天

◆讀者諸位여 本欄잇슬때만히 利用하시다全南光州府不動町에사든 李泳根氏가 二十年前에京城으로가서잇다가 十年前에 大連奉天等地에서書信來往까지잇다가 數年前奉天事變以後로 一切無消息합이다 讀者諸位게서 居住을 아시는분이게시면 本報社交欄을 通하여주시든지 不然이면 左記 住所로 알여주시면 謝禮를올리겟습니다 湖南線松汀里 湘李根

漢詩
『蓮』=押心 桐岡考選
佳作三之二 江原道通川邑中里 史女 李逢春

仙女何年墮玉簪、
化蓮散在綠池深、
幾雙金盞傾盤面、
無數青錢貫水心、
貞淸猶惜塵人看、
華麗却疑天國臨、
中有老龜捿息好、
穿根上葉任浮沈

曆
九月十九日(土)
陰丁酉八月小(初四日)
甲辰·火·氐·危
●秋分二十三日(舊初八日)
●寒露八日(舊二十三日)

絢爛한 天分의 爭霸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期日 決選十月二十四日、豫選十月廿一日、申請十月十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女)「슈-만」 一、님은 나의安息(男)「슈벨트」
【피아노】 一、「소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체르트」(G長調)—第一樂章—「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五十錢에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 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疲れの恢復には是だ！

마서라!
이것은 疲勞恢復에 가장 即效的이다!
何故냐하면 이의 主要成分은 葡萄糖이고 葡萄糖은 特殊優秀한 榮養素로서 秋毫도 胃腸에消化의負擔을 지게하지안코 곳吸收되여 精力이 되는까닭이다!

五十 醫學博士 御推奬
天然 甘味 優良葡萄酒

赤玉ポートワイン
뽀-도와인

連載野談 (不許轉載)

布袋記 (三)

申鼎言 作　金龍起 畫

마를캐든총각 (六)

서동이 그어머니의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괴어히 신라를 향하야 떠날제 그어머니는모든 것이 걱정이되는 긔색으로써 서동을 향하야

「네가 어미의 말으는말을 듯지아니하고 엉뚱한 마음으로써 배번 어려운길을 긔어히 떠나려하니 이것은 분명 어떤 귀신이 들씨운 팔자소관의거롱 네가 뜻한일이 일우기는 어렵고 화를 당하기는 쉬운일 내 아비업시 너를 저만큼길럿슴에 그애가 귀한것이 파면 신상치안키를 네가어미의 정경을 살피지아니하고 어려운 길을 떠나니 백가지로 방정마진 생각을 일우치랄할길이업는 이어미의마음 자식은 품안에잇서 자식이오 품밧게 잇서는 자식이아니란 말이 헛말이 안닌것。 어미는 이제 네게대하야서 무엇을 부탁해야할는지。 오직몸성히 돌아오기나 바랄뿐。」

하며 몹시나처량한비츨 띄웟다。

「자식이 되어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것이 비록 잠시라할지라도 분명히 효가 아니오것。 그러하오나 이번에 신라를 가는것은 장차 어머니의봉양을 더욱 정성껏하야그 은혜의 만분지일이라도 갑흐려하압는것。 모든 걱정을 바리시고 계시면 얼마아니잇서 선화공주와 가치 실하에 속히 돌아오겟습니다。」

하고 서동은 그어머니의 마음을 정성껏 위로하고 곳 길을 떠낫다。

이에 서동이 마를 한짐 잔뜩 질머지고 고개도 넘고 물도 건너 신라 산천을 바라보며 걸어갈새 즐옴도 무거운 짐을 지고 걸것는 괴롬은 늣기지아니하고 가슴에 가득한깃분마음으로 스스로 노래를 지여 부르되

마를 지고 가는 총각
마를 파는 총각 어지
마를 버서 노흔 내몸
절세 미인 업고
어여 쫍흥 아내 사랑

하며 거름을 빨리 거름새 각금 각금 수건을 꺼내어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씻것다。

서동이 이노래를 되푸리하야 거리 가다가 다른 행인을 만나는때는 작간 소리를 그치고 그소리 대신으로

「오옹 되엇지 되엇서 둘렷인 시 꼭 되엇지。이마 한짐으로 정하 정세 선화공주를 데려오면 말이지。 고마운 마이지 고마운 마!。」

하며 손녀이 마진 중처를 중얼거리기를 마지아니하얏다。

서동이 이럿듯 노래도 부르고 중얼거리기도하는중 길은 마음이 더욱 부바친을 외이지못하야 앗거에 다른 행인이 보이지 안는틈을 타서

「이얘 물너서라! 마장사 동이가 가는것이 아니라 신라국 부마의 행차시다。 호호호。」

하며 혼자서 조와하고 웃으면서 거름을 더욱 빨리 빨리거럿다。

이에 별안간 뒤에서 큰목소리가 나면서

「이배 이놈아! 너 지금한소리가 웬소리냐?」

하며 좃처오는 두 군사가 잇섯다。

「무슨소리가 무슨소리여요。내 말 내가 직거렷지요。」

하고 서동은 시침을 떼고서 흔연히 대답하얏다。

「아니。부마행차란말이 웬말이난 말이다。」

하고 그 두군사는 노기를 몹시또고 서동을 바로 노려보앗다。

「부마 행차가 부마행차지 무엇이야요。」

「아아。그래 네가 부마란말이나 이놈아!」

「몰음이지요!」

「어째서 네가 부마야?」

「허허。내가 절머진것을 보지면 아직것 아니야요?」

「네가 절머진것이 무엇이란 여나?」

「마여요!」

「그러면 어쩌니까 부마 행차야?」

「허허。마를 질머지고가니 부마가 아니야요?」

「오옹 그래서 부마란말이지。 예! 그러나 부마란말은 함부로 못하는 말이야 어디에는 조심해!」

「부마를 부마라지 무어이라고 해요?」

「어허 이자식아 부마라는것은 임검의 사위를 가르처 부르는 말이야!」

「에 그렇습니까! 호호호」

하고 서동은 부마란말을 입에 올려서 그공주가 서비를 져리려고 하는것을 를 면하얏다。

그런데 서동이가 신라 서울에 들어서자 고이한소문이 세상안에 떠졌다。

「자! 어소문이 헛소문이야!」

하며 여러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얏다。

라디오

十八日 (金曜)

◇午後六時 連續兒童劇(一)「행낭아이」二幕

【配役】 順子(主人)……[illegible] 玉順(그의동무)……崔英淑 慶伊(同)……朴永愛 壁玉(행낭아이)……朴永熙 泰植(壁玉의오빠)……金小泉 順子의아버지……金寶重 壁玉의아버지……張弘淑 金서방(일꾼)……姜仁奎

京城어린이放送會 指揮 金洛升 効果 金虎俊 音樂 姜俊熙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滿洲事變五週年을當하야」 國民協會理事長 金明濬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三) 第二高普 金雄珏

◇同八時 (大) 獨唱과齊唱 —桃谷演奏所로부터中繼— 一、獨唱 가、祖國愛 長田幹彥作詞 江口夜詩作曲 나、防人의노래 富田砕花作詞 弘田龍太郎作曲 二、齊唱 가、祖國의기둥 大木惇夫作詞 服部良一作曲 나、직히라大空 江口夜詩作曲 田歌二作詞 …(歌劇의戀人)…池田 [illegible] 放送管絃樂團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合唱과管絃樂 JOAK唱歌隊 伴奏 放送오케스트라

◇同六時二五分 (滿洲)講演(新京서부터)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堀田 [illegible]

◇同八時 (東)漫談 寺內 [illegible]一

◇同八時 [illegible] 合唱 大阪放送合唱團

◇同九時一五分 (東)

◇同九時二五分 (大)義太夫 文樂座

◇同九時 (東)落語 金原亭馬生

十九日 (土曜)

◇午後零時五分 伽倻琴倂唱 一、短歌 二、唱歌調 沈相健 大丈夫 朴秋月 雜歌 鼓手 池龍九

◇同六時 連續兒童劇(二)「행낭아이」二幕

—配役— 順子(主人)……[illegible] 玉順(그의동무)……崔英淑 慶伊(同)……朴永愛 壁玉(행낭아이)……朴永熙 泰植(壁玉의오빠)……金小泉 順子의아버지……金寶重 壁玉의아버지……張弘淑 金서방(일꾼)……姜仁奎

京城어린이放送會 指揮 金洛升 効果 金虎俊 音樂 姜俊熙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十分 週間時事 朝鮮日報 咸尙勳

◇同七時三〇分 講演「新聞의社會性」 每日申報 柳光烈

◇同八〇〇 孔明歌外 一、孔明歌 二、寧邊歌 三、山念佛 四、변조난봉가、개성난봉가 金順紅 金振鳴

◇同八三〇 野談 丈夫心境 庾秋岡

◇同九〇〇 獨唱 一、嘆息의노래…토젤리作曲 二、도라오라 소렌토로…쿠르티스作曲 三、西班牙小夜曲…비제作曲 四、미의노래…푸치니作曲 五、歌劇 마담버터플라이中에서 어느개인날…푸치니作曲 金文明 피아노伴奏 金珍栗

第一放送

◇午前六時二〇分 (京)速成獨逸語講座 登張信一郎

◇同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白井竹堂

◇午後〇時〇五分(東) 野球試合

◇同六時(大) 童話劇 童心座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長瀨貞一

◇同七時三〇分(東) 新日本音樂 久本玄智社

二十日 (日曜)

◇同七時五〇分 管絃樂合奏

◇同八時二〇分 (大) 物語 坂東壽三郎

◇同九時 時事解說

◇午後零時五〇分 報念外 一、報念 二、六字배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金錦玉

◇同一時二〇分 레코-드 音樂 金南洙

◇同六時 (管絃樂) 名作童話 樂 金星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 田榮澤

◇同七時三〇分 歌曲 一、羽調頭 二、羽樂 三、環界樂 四、界樂 五、編

◇同八時 流行歌 一、꼬젯배 二、울면서기다리며 三、꿈을실은배 四、追憶의손 五、그리운내故鄕 洋琴 大笒 杖鼓 金美花 崔相仙 金鳳淳 金永根 金一宇 伴奏 DK管絃團 全英吉

◇同八時二〇分 詩調와謠書 一、詩調 二、잣타령 三、濟陽아리랑 四、靑春歌 五、홍타령 六、방아타령 細笛 短簫 崔高山 玄載德 崔成玉

◇同八時二五分 노들江邊 一、노들江邊 二、도라지打令 三、李文源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 토기打令 鼓手 朴初月 丁元變

◇同一〇時 朝滿交換放送 —京城으로부터— 吹樂 一、行進曲 吹打 二、民謠 古調아리랑 三、俗曲 굿거리 四、民謠 방아타령 (演奏되는樂器名 太平簫 喇叭 螺角 啫囉吶 龍鼓) (太平簫獨奏) 太平簫獨奏 指揮 三唱吹樂團 朴基植 金東昌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農村講座 千田貞雄

◇同一〇時 (東) 講演 矢追秀武

◇同一〇時三〇分 (大) 講演

◇同午後六時 合唱과피아노、바이올린 淺草香末起 竹內嘉子外

◇同七時三〇分 (東) 歌謠曲 田中佐和子

◇同七時五〇分 (東) 漫畵 柳家三龜松

◇同八時一〇分 (東) 映畵劇 P・O・L

◇同八時五〇分 (東) 浪花節 浪花亭綾京

◇同一〇時 朝鮮交換放送 京城부터

唱劇史上의新機軸

歌劇「春香傳」大公演

보라 適材 適役의 名唱들!

指揮 李東伯
演出 宋萬甲 丁貞烈
脚色 金容承

□配役□

新官使道 金昌龍
李道令 丁南希
春香 朴綠珠
春香母 林小香
房子 吳太石
香丹 金任壽
雲峰 李東白
任實 丁貞烈
谷城 宋萬甲
獄使丁 沈相健
級唱 徐鴻九
執事 丁元燮
首刑吏 韓成俊
使令 金世俊
使令 吉南承
驛卒 趙相鮮
驛卒 柳大福
通引 都點伊
執杖使令 姜太弘
行首妓生 曹鸚鵡
妓生 李桂仙
成壽香 李玉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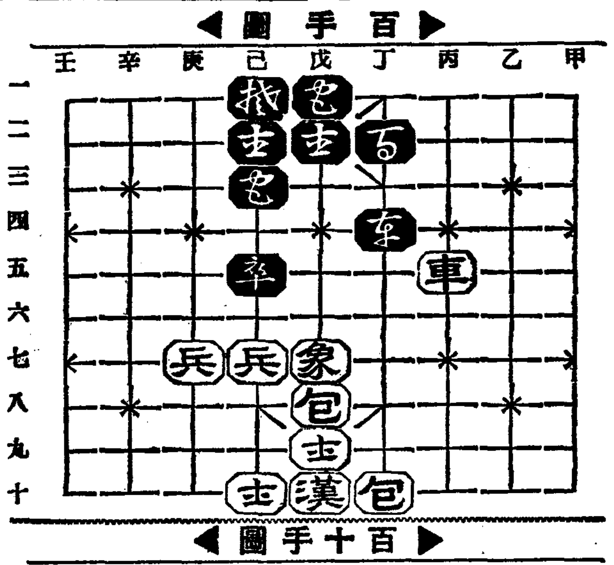
時日 九月廿四日부터五日間 ● 場所 東洋劇場

主催 朝鮮聲樂研究會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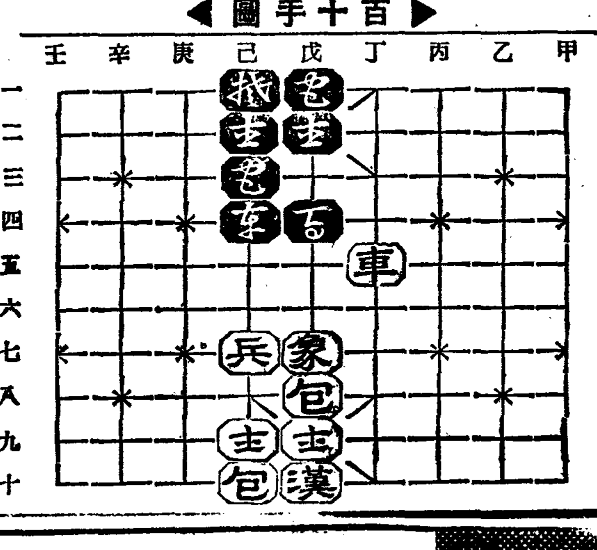
社催 將棋名手對局譜 (二十)

楚先手 全于石　漢 李在鳳

◀百手圖▶



◀百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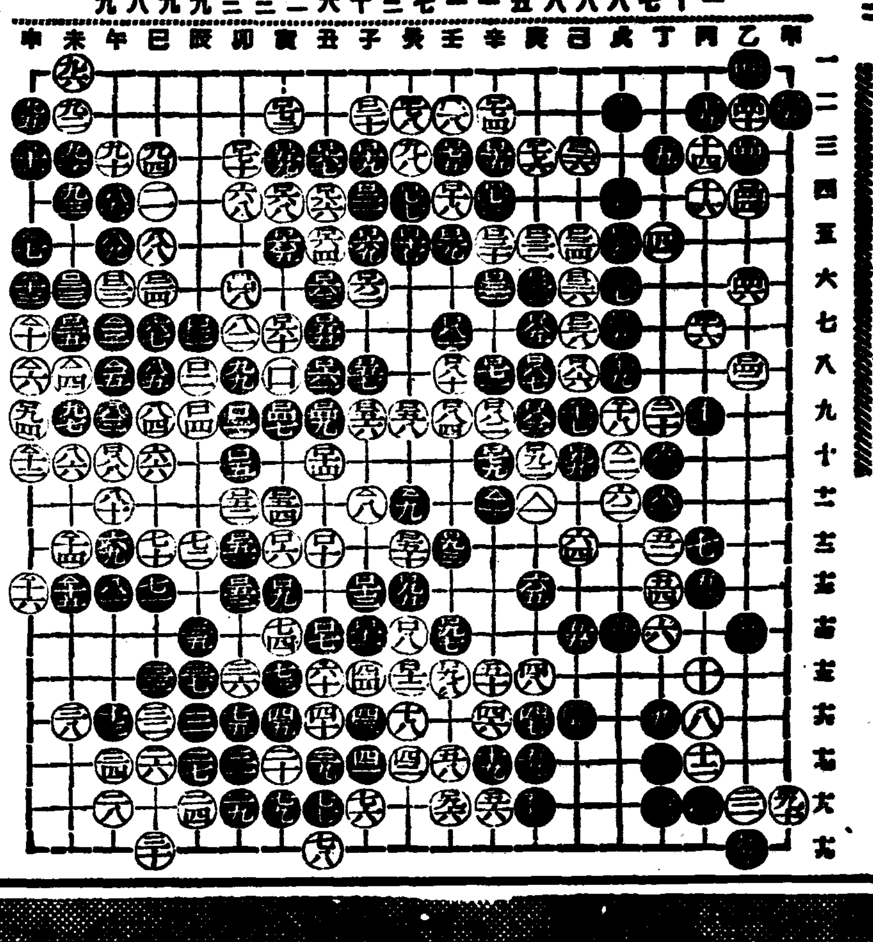
己五包—己六　丙五車—己五　己六包—己七打兵　庚七兵—己七打卒　丁四包—辛四

己三士—己二　丁三包—戊三　己五車—丁五　辛四包—己四　丁七包—己七

蔡極文氏評曰 楚이 局勢不及으로 極端思想이 卒發하야 戊의八로 白包圖策을 試用하나 來頭奇變은 一層더 趣味가 引長될가하노라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2—

白 尹周炳　黑先 柳鎭河



●二〇一 辛의十一　○二〇二 戌의十　●二〇三 午의七　○二〇四 未의八　●二〇五 午의八　○二〇六 申의八　●二〇七 申의五　○二〇八 子의十一　●二〇九 癸의十一　○二一〇 申의七　●二一一 申의三　○二一二 申의十　●二一三 申의六　○二一四 未의十二　●二一五 未의十三　○二一六 申의十三　●二一七 己의九　○二一八 戌의九　●二一九 戌의八　○二二〇 丁의九

강력유화장치코로어드・밀사용초미립자영양크림 (强力乳化裝置코로어드・밀使用超微粒子營養크림)

ヘチマクリーム

헤 치 마 크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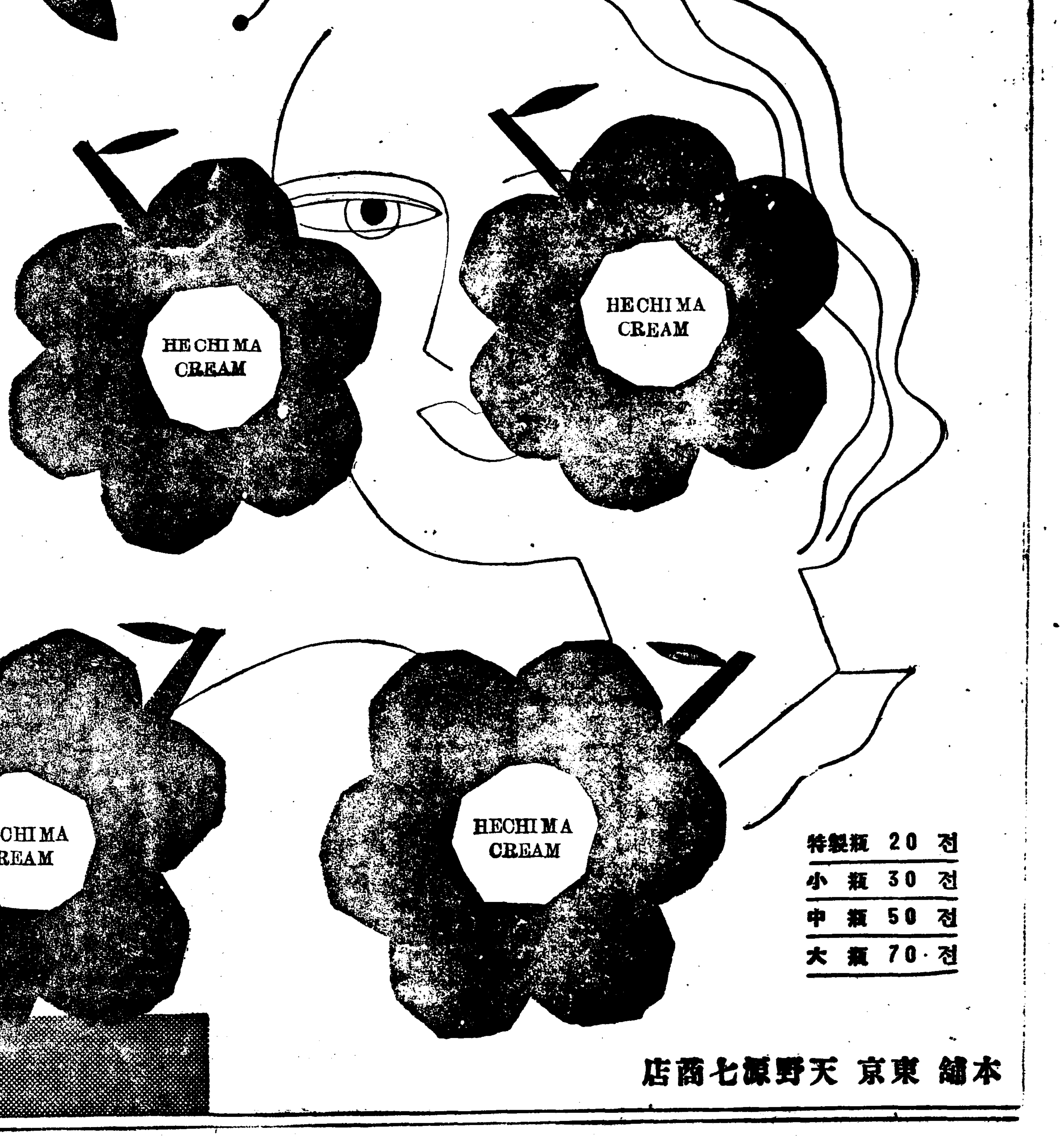
Hechima Cream

白粉이얼룩진

婦人은 참으로 目不忍見입니다

化粧이熟達해지려면먼저第一로化粧料의選擇이必要합니다 ヘチマクリーム은最近美容科學의粹를蒐集하야겨우完成된것으로滲透性과强力無比한肌膚榮養力과를具備하고또粉子가非常히細微하므로白粉이잘먹는것은말할것도업고 땀脂肪에도化粧이밀닐念慮가업습니다

살결의健康과美化는全혀마음대로된다고말할수잇습니다。



特製瓶	20 전
小瓶	30 전
中瓶	50 전
大瓶	70 전

本舖 東京 天野源七商店

HCD.H

垈地料를六倍引上 七十戶借地人恐慌

卅日까지地主要求不應이면 家屋撤去하라고通告

【价川】 价천군价천지(价川郡价川市)내에 대지를 가지고잇는토지주는 전면에 매평당 비싼전세대지료를받든것은 금번에와서는 돌연히지료를올려 매평에대하야 매달오전식을 요구하므로이무리한요구에는 도저히 응할수 업다하야 칠십호의 차지인들은 얼마전에 차지인회를 모여 토의한결과 요구에응할수업다고지주에게말한바잇섯다 지주측에서는만일불응하면 가옥을 철거하라는최고서를 발부하엿다는데 최고서에의내용은 아래와갓다 구월삼십일내로 청구하는 대지료를 지불하되 만약지불치 안는시는 가옥을 철거하라고 하엿다

長箭近海서 鰛群廻游

北洋丸의報告

【元山】 지난십사일 원산이남의 온어상황을 조사하려갓든 원산수산시험장 소유선 북양환(北洋丸)의 보고에 의하면 장전(長箭)바다십리(浬)부근에 상당한 온어대군이 회유하고잇슴을 발견하얏다는데 동시현장에서는 각지에 통지를발하얏다 전긔와가티 온어 대군이잇스나 원산부근에는 온귀착망을비롯하야 온어선이라고는 한척도 남지안코 모다 차호(遮湖)방면에 출어중이므로 애석하게도어군을놋칠우려가 잇다고하야 그 시험장에서는 각지에 통보를하얏다고한다。

그런데 전긔온어군은 시긔로 보아 북상하는것은 아닌듯하며 만일 남하한것이라면 당분간그곳에 체류하리라고 하는데 그리하면 불일내로 온어대회의쾌보가 잇스리라고 어항원산해상들은 작약하고 잇는중이다

度넘은拔稗獎勵 各地에弊害不少

普校生을動員 함부로벼를밟어 咸州郡內農民들非難

【咸興】 함주군주서삼평(州西三平)등 면에서는 방금 성숙긔(成熟期)에잇는 논에 도피(稻稗)를 뽑바버린다는 리유로서 각보통학교생도들은 학과까지도 거이 전폐하다십히하야 총동원시켜가지고 함부로 논판을 듸려밟버 그피해가 막대하며 이도를넘친 발피장려(拔稗)에 일반농민의비난이 극히 자자하다고한다

함주군 당국에서는 최근 피(稗)의발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야 각면에서 미리부터 도피(稻稗)가만흔 논을 조사케한후 가장 도피(稻稗)가만흔 논에대 들어가서 도피(稻稗)를 함부로 뽑바 버리게하는데 원래 수만하야서는 그면에잇는 보통학교의 아동들을 동원시켜 논판에 흔 아동들이 함부로 논판에들어가 밟는고로 도피(稻稗)도 물론 뽑겟지만은 그보담오히려 벼(稻)를 더만히밟버 막대한피해를 끼치고잇다 원래 이 도피(稻稗)에 대하야서는 일반농가에서도 피해를 극히 잘알아 적극적으로 발취(拔取)하려고 애쓰는터인데 비료특히 퇴비(堆肥)기타여러가지 관계로서 도저히 근절(根絶)할수업다고하는데 이러케학교아동들의 수업(修業)까지도 삼사시간식 아니하고 나와서 함부로 벼를밟버서 들이쳐 해를끼치게하는 군면당국의 도를넘친 장려(獎勵)에 비난이 놉다고하며 혹시 학교아동들이 자긔논에나나오지 안흘가하야 전전긍긍한 가운데 잇다고한다 그리고더욱 거이성숙(成熟)한요즈음에와서 뽑게하는것은 그도피(稻稗)의씨가 다시 논판에떠러저버리는일이만흠으로 그대지큰 효과도업다고한다

山城普通學校에 特別寄附遝至

【山城鎭】 교육기관이 불비한 만주에서 귀여운자제들을 가라키는 산성보통학교(山城普校)를위하야 리상영(李相英)씨의 일백십오원을 필두로 오백구십여원의 긔부금이 모집되엿슴으로 지난 십이일 후원회총회석상에서 그특별긔부자를 발표하엿는데 긔부자방명은 다음과갓다

李相英 一一五、○○ 金永華 五六、○○ 合成精米所三○、○○ 廣信精米所 二○、○○ 大興精米所一○、○○ 新興精米所 五、○○ 萬興精米所一五、○○ 永信精米所一○、○○ 三裕精米所一○、○○ 新盛商店一○、○○ 森隆商店一○、○○ 海興旅館一○、○○ 康德商店一○、○○ 山城館三五、○○ 東興商店一○、○○ 河在專 一○、○○ 永鮮商店五、○○ 德昌自轉車店五、○○ 金昌商會 一○、○○ 康昌洙 五、○○ 成文浩一○、○○ 鄭元澤一○、○○ 康信麵店三、○○ 金正模一○、○○ 金基永三、○○ 洪用植五、○○ 金正根三、○○ 金顯元五、○○ 朴基成一五、○○ 金洪洪五、○○ 金觀鎬三、○○ 朝鮮商店一○、○○

日新學院을 簡校昇格運動

【咸興】 함경도함주군 구락면인 흥리(興里)에시설한 일신학원(日新學院)은 유일한 무산아동교육긔관으로 지난봄에 당지 리근신(李根信) 리원혁(李元赫) 리선수(李善守)씨등이하 유지제씨의 노력으로 설립되어 이래 비약적발전으로 생도 팔십여명을 산하는터이나 모든방면으로 보아 실로미약한비만하여 설립자제씨는 당국에서 명춘에설립케획중인 간이학교로 승격시키고저 관계당국에 지정서를제출하는등 맹렬히 운동중이라는데실현될것은 물론이며 당지보통학교(普校)소재지로보나 교통관계 또는 일반사정으로보아 그중최적지라고한다

被害作人을一一訪問 慰問金과食糧麥

現世稀有의善德地主

【高靈】 지주소작인간에 말성만흔 고령에서도 배면에는 미행의지주도잇다! 그는 대구에사는 향판장길(向坂庄吉)씨로 고령지방에만 천여두락토지를 소유하야 당초부터 제세공과금(諸稅公課金)을 자담하여왓스며 소작료도 도저히 타지주의 추종치 못할만치 지주사할 소작이할이라는 협한비율로써 상사백명 소작인은 모다감사히 생각하든바 금번풍수해로 소작인가운데 무참히 피해를입어 의식을 난계하는자가 쌍림 개진 고령(雙林, 開津, 高靈)삼개면에 사오십명에달하는데 지주 향판씨는 구휼피륙 원지협조를 불구하고 도보로 일일히 호별방문하야 갱생의 길이잇슬것이니 락담치말라는 간곡한말로 위문하고 매인당 삼원내지 오원식 위문금을주고 대맥일흡시겨 보리백가마니를내여 무상대여케하야 구조에 로력하는바 밧는자는 물론 일반은 이미거를 매우칭찬하고잇다한다

明春實現目標로 電話架成期成

【三湖】 함남상호(三湖)는 천여호의 호수와 오천여명의 인구를포용한 북조선에잇서 유수한 어항으로서 변산액이백만원으로 초과하고잇는바 통신망의 불비로서 상업상큰타격을 보는일이만흠으로 이를유감으로 생각하고 잇든중 지난십오일 지방유지삼십여명은 상호면회의실에모이어 활당한결과 즉석에서 전화가설기성회를조직하고 관계당국에교섭진정하야 늦게되어도 명년봄에는 꼭실현을보리라고 관측된다

水災同情映畫 五十四圓을義捐

南市體育會主催

會長 金弘範 總務 金東徹

【南市】 지난십사오일간룡천남시체육회 음악부에서는 의주국경영화회사순업대를(義州國境映畫會社巡業隊)마지하야 당지청년김기선(金基善)씨의활동으로 남조선수해구제영사대회를 개최하엿는데 만원의성황을 이루어 영사대회는 원만히 진행되엿는바 그중 수입금오십사원구십이전은 사회사업협회를 통하야 리재동포에게 보내기로하엿다한다

旱冷에雨雹까지 農作에被害莫大

豐作의기쁨도一場의春夢化 泰平地方農民不安

【泰平】 평북태평일원에는 남조선부서운 풍수해에 반하야 우순풍조로 대풍작을 예상하든바 가을이 되면서 즉결실긔의 냉해로 벼는결실못한 이삭이만흠으로 일반농민은 우려막심 하든차에 설상에가상으로 지난십칠일 오후두시경에 우연히내리기 시작한비는 우박이 겸하야 약 십분동안이나 쏘다젓슴으로 풍작예상도 한낫꿈에지나지못한다하며 오직 검곡만이 순조로 결실하여간다고한다

定州에도降雹

【定州】 평북 정주지방에는 지난십칠일 오후네시반부터 비가 쏘다지면서 약오분간 우박이 퍼부엇스므로 농작물의 피해도 불소할 모양인데 기온의 급속저하로 감기환자가 속출하는모양이다 병원진찰부사회자가 이십여명에 달하여 통안에 차여잇느니만큼 일반은 위생에 주의하기를 바란다고한다

永明學院에서 八圓餘를寄托

【南市】 순진한어린아이들의 마음에도 남조선풍수해의 참담한 정상에 동정하야 자진긔부한미담 평북룡천군남시영명학원(南市永明學院)직원생도들은 얼마식서로모아 일금팔원사십전을 신의본보남시지국에가지고와서 이는 사소하나마우리어린이들마음으로 나온동정금이오니 본사(本社)를 통하야 남조선 리재민동포에게보내달라고긔탁하얏다한다

關西力技大會盛況

【安州】 안주청년단 주최의 제이회 관서력기대회는 예정한바와가티 지난십이일 하오팔시반부터 안주미라관에서 개최한바 아래와가튼 우수한 성적을 내이엿는데 특히 김선학(金善學)군은 추상(推上)에일백오십근인상(扛上)에일백오십오근용상(聳上)에 일백칠십오근이라는 세계적긔록에 갓가운 우수한 성적을가지엇다고한다

記

輕量級 一等 劉承燮 計三百六十斤

中量級 一等 白善鉉 計四百三十斤

重量級 一等 金善學 計四百六十斤

通川의劉錫堯氏 一金千百圓喜捨

罹災民救濟의赤誠

【通川】 금번대수해로인하야 대량의 이재민을내임에대하야 동포애(同胞愛)를 통절히느긴 통천군류석요(劉錫堯)씨는 지난칠일 현금팔백원과 소미(小米)이십오포를 희사하야 일반의칭송이자자하다한다

西朝鮮庭球戰 來廿七日에

【舍人】 평남 순천군 사인장의 순천청년회 본사사인지국후원으로사인장역"코ー트"에서 지난십삼일에 열리기로 되엿든서조선제일회 정구대회는 일이만반준비를 완료하고서 고대중에 잇섯는데 마침 그날은 폭우로 아츰부터 나리는 폭우는 오후까지도 못지지안흠으로 부득이오는이십칠일로 연기하엿다는바 따라서 신청기일도 이십오일까지로 연기하엿다는데 잇지 참가키웃든 각지선수들은 이때에 모다 신청하기 바란다고한다

地方人事

▲沈載健氏(楊州郡廳庶務係主任) 新任人事次本報楊州支局來訪

▲南宮本利德氏(金浦郡內務主任) 新任人事次本社金浦支局來訪

▲金承德氏(前大浦金組理事) 楊口金組轉任人事次本報大浦支局來訪

▲柳美澤正午氏(大浦金融組合理事) 新任人事次 同上

▲平井良弘氏(安城郡廳庶務係主任)新任人事次本報安城支局來訪

今 十九日 正午부터 箕林里公設"풀"에서

第五回全朝鮮水上競技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元山 關北個人庭球大會

▲日時 九月十九、二十兩日午後一時

▲場所 元山海星普校코ー트

◇主催 元山天主教青年會

◇後援 朝鮮日報元山支局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長湖院支局 位置 利川郡長湖院市 支局長 閔慶鎬

青山支局 位置 沃川郡青山市 支局長 元貞喜

新高山支局 位置 京元線新高山驛前 支局長 文壽彥

永安支局 位置 咸鏡線永安驛前 支局長 崔都星

圖們支局 位置 間島圖們市中秋街 三三 支局長 李文煥

會文支局 位置 咸鏡線會文驛前 支局長 玄基台

彥陽支局 位置 蔚山郡彥陽市 支局長 張璉喜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翠野支局 位置 海州郡翠野市 支局長 朴奎欽 右任支局長 朴基仁 右依願解任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大平分局 位置 平南線大平驛前 分局長 金一煥

抱川分局 位置 抱川郡邑內 分局長 崔富成

業億分局 位置 城津郡業億市 分局長 朴東烈

謹告

綾州支局 寫眞班記者 朱湧錫 右新任

遂安支局 總務兼記者 金相實 右新任 總務兼記者 金仁錫 右依願解任

利川支局 集金員 朴鳳錫 右新任

苗浦支局 記者 金富成 右新任

三陟支局 總務兼記者 朴[illegible]英 寫眞班記者 北川[illegible] 右新任

白川支局 江[illegible]分局長 [illegible] 右新任

載寧支局 新[illegible]分局長 [illegible] 右新任

金海支局 集金員 [illegible] 右解任 集金員 吳[illegible]秀 同 [illegible]二寬 右新任

城津支局 電話 三一八番

金堤支局 美[illegible]分局長 崔元植 右新任

安城支局 竹山分局長 金慶鎬 右新任

大同支局 寺洞分局長 崔亨沫 右新任

永登浦支局 電話 二○三番

小井里分局 記者 金龍泰 右新任

牙山支局 記者 韋學率 右新任

楊市支局 寫眞班記者 韓王晋 右新任

長箭支局 寫眞班記者 白雲鶴 集金員 李漢載 右新任

江華支局 集金員 高承龍 右依願解任

殷栗支局 金山浦分局長 白台五 右新任

翠野支局 竹川分局 朴惟培 右新任

會寧支局 記者 高晶奎 右新任

牡丹江支局 記者 金瀅培 右新任

南川支局 總務兼記者 吳甲洙 右新任

愛慾의彼岸 【104】

李光洙 作 金東穆 畵

문임은 주상을 내술한때에이라고 모욕한 김장로의 말에분함을 느끼면서

「그게 그럿케 내술할게 무엔니까。 총각이 처녀를 따라다니기로니。 당연한 일이지오。 안해잇는놈은 사내가 계집애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잇는세상에」

하고 생속해진다。 문임은 말을 넘어 지나치게한것을 뉘우친다。 그러나 김장로는 제 마음대로 아모렇게 달라도 펀찬올것가리 생각하고 문임의속으로 좀더 분개한 생각을 길운다。

김장로는 입맛만 다시고 아모 말이 업다。 그러나 속으로「이제는 나도 늙어버렷구나」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든든해진다。 인제는 청청바이돌리고 예배당에서 내노코 문임과 혼인례식을 하더라도 세상사람은 추하하는 말밧게는 아모말도 할수업다고 생각한다。

「그도 그러치」

하고 김장로는 문임이가 공격한것이 제가 아님을 확신하는드시 대답햇다。 동시에 은주가 혜련에게 사랑을 청한것을 괘씸하게 생각한것도 취소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론리적 결론에 다달앗다。 김장로는 무슨 힘에게 압박되는듯한, 그래서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잇던 지위를 내어놋치아니하면 아니될것가틈을 느끼엇다。 문임의 생각과 말이 제것보다 진리성이만흔것가탓다。

그러나 동시에 혜련이가 아버지인 제게로서부터 대단히 멀리 물러나간것 갓탓다。 어쩌면 그동안에 은주의 일과 주상의 일이 잇으면서도 도모지 아버지인 제게는 일언반사도 업엇을까。 그것이 퍽 섭섭하엿다。 혜련이가 어떠케나 사랑하던 딸인가。 전문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혜련에게는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엇다。 뭇슨 말이나 다 아버지께 하엿다。 그때에는 혜련의 마음 속에 잇는 생각은 다 아버지인 김장로 자신의것으로만 알앗섯다。 그리하던 혜련이가 인제는 얼마나 멀어젓든가。 제 마음에 괴로움이 잇더라도 말하려아니하는 아버지가 되엇고나、할 때에 김장로는 슬프기까지도 하엿다。

그러나 스스로 돌아보면 김장로 자신도 혜련을 멀리한 셈이엇다。 젊은 녀자들에게 마음을 동으로부터는―더구나 문임에게 마음을 동으로 부터는 혜련에게 대한 주의가 얼마좀 떠진것이 사실이엇다。 원산에나 해금강에서나 혜련을 도로혀 구찬케 생각한 때조차 잇지아니하엿나? 이러케 생각할 때에 김장로는 하늘이 무서운것 가탓다。

아비바게는 기대는데가 업던 딸 혜련이가 마음에서 아비를 잃어버린 때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엿슬까。 술을 아버지 눈치를 보며 아모조록 제 몸을 비키는 혜련의 심사가 어떠하엿슬까 이러케 생각하면 김장로는 미안한 생각을 금할수가 업섯다。

「늙은 내가 젊음을 그리워하거든 젊은 제야 오죽하랴」

김장로는 이러케 생각하여서 만일 혜련이가 정말로 은주를 생각할진대 문임의 말대로 해주리라 하엿다。 이것은 일변 혜련의 원을 푸는것이오 또 일변으로는 제게는 은인 (거트로는 은주의 아버지를 은인이라 승인한 일이 업지마는 속으로는 특별히 병이나 나서 마음이 푹갈아안즌 때에는 역시 은인이라고 생각하엿다)의 아들인 은주에게도、또 사랑하는 문임에게도 조흔 일을 하는것이라고 그야말로 일거삼득이라고 생각하엿다。

「그래。 그럼 그러기로 행。 혜련이한테 물어보아서 저만 그러는것이 원이라면 그래도 조아」

하고 김장로는 마친내 선언하엿다。

이 문제로 김장로와 문임 사이에 어야기가 오락가락할때에 혜련이가 바닷가에서 돌아왓다。 그러나 아버지 방문 박게 문임의 신이 잇는것을 보고 혜련은 그 방으로도 아니 들어가고 저와 문임이가 차지한 방을 들어갓다。

혜련이가 문을 여닷는 소리에 김장로는

「혜련이냐」

하고 불럿다。

「예」

하고 혜련은 방에 선채로 대답하엿다。「왜 부르십니까」하고 혜련은 아랫 입술을 빨면서 생각하엿다。 혜련의 머리속에는 강선생의 그림자가잇섯다。

肋膜炎 꼭낫는다! 肋膜炎에百發百中 濟世堂藥房

恩給 五年以上在職者 京城中學町一七 大東商會

림질 キヨリン「코링」 日光堂藥品部 振替京城一九一四三番 各地有名藥店에도잇스나品切時엔本舖로注文하시오

科喉咽鼻耳 永日美士博學醫 京城仁寺町一二三七 電光二六六五番 備完室院入

養毛美髮의第一이다 美孃香油 美孃ポマード

韓氏四家代世傳秘方創 效力偉大·萬腫速治 韓氏膏藥

朝報案內 鍼灸 講習生及事務員募集 本人履歷書持參 旭町三丁目九 二元堂鍼灸學院

◎支局募集(紙價一個月二十錢) 三錢切手添送하시면規定書를送呈함 京城府林町八二番地 週刊 中央時報社 電話(本)五三四番 振替京城四五二五番

沒金小切手紛失無效廣告 一、番號 第四號 一、金額 金一千四百七十九圓四十六錢也 一、振出月日 昭和十一年九月十日 一、受取人 李 一、振出銀行 漢城銀行南大門支店 一、支拂銀行 朝鮮殖産銀行原州支店 右紛失故로玆以廣告自今無效로함 昭和十一年九月十七日 原州郡 李

クボタ 石油 輕油 發動機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産品 謝恩特賣 蓄音器景品附 自九月一日至十二月末日 杉山商店京城支店 電話本局長882番 4784番

カメラと材料 釜山本町一 岩瀨寫眞機店 電話七五五·振替釜山七五一

眼鏡은東亞醫院 專門 檢眼 眼科.齒科 京城 鍾路 電話光化門二四三六番

七面鳥 年利益二十五割確實有利副業 中郵及種鳥種卵特價分讓 開城府滿月町二八一ノ六

參茸トニク 慈善堂製藥株式會社 京城鍾路三丁目 五圓·二圓八十錢

帳簿ノ御用命ハ是非 京城府蓬萊町一丁目八九 京城驛前(西入リ南大門向) 京一帳簿製造所 電話本局一九四四番 振替京城七六二番

東亞軍手製造家募集 朝鮮副業協會 談 東亞手袋工場 電話本局五九五七番·振替京城一四五七一番

外科 肛門病科 醫學博士 朴昌薰 京城府樂園洞一二五 電光一四五二

代理店外務員募集 月收百圓以上二百圓程度希望者來談할사 京城府元町二丁目 東亞商工株式會社 電話龍山四一四 振替口座京城二二七七一番 (要返信料三錢切手封入)

京城八月中金融과 重要商品概況
風水害로市況不振

米 前月末의 實勢로 보합이든 人氣에다가 日本內地入荷 及 精米側의 買進이 잇서서 자못 强調를 보이엇다 後半은 南鮮地方의 豪雨로 作況이 悲觀되고 日本內地도 强氣로 前月末보다 一圓六十錢內外의 昂騰을 示하얏다 中旬에 入하야도 依然 天候가 恢復치안코 十數日에 亘한 降雨는 各地에 水害를 이르키어 人氣를 刺戟하얏으나 日本內地好順과 目前의 攄下米에 市況이 明朗치못하고 農家는 年來高價생각이 머리에 기고백이어 잇섯던것이 投賣하게되고 投機側의 賣와 精米側도 原料手租는 ...

[illegible]

粟 滿洲粟作況은 ... 市勢 上旬 中旬 下旬 [illegible]

大豆 [illegible]

小麥 海外小麥 及 日本內地小麥의 騰貴에 刺戟되고 特히 月餘에 亘한 惡天候繼續으로 出廻가 적어 連日 新高 ...

肥料 [illegible]

綿布商人絹 [illegible]

過剩米配定에 比率變更必要
凶作年으로四三%負擔은過重
農林省容認如何重視

自治管理法의發動은不可避로過剩米管理의統制比率이 問題이데 凶作年인 朝鮮에四三%의統制比率의負擔은關係各方面에잇서 重大關되다 農林局에서는自管法의發動에際하야 이統制比率의例外를 日本內地側에要求할方針이라 한다

過剩米統制의 日本內地三五、朝鮮四三、臺灣二二의配定比率은 外地共히作況이平常인狀況에잇서서의일이오 豊凶如何에 依하야서는 比率의變更을할수잇는것이나 朝鮮側의主張을農林省이 어느까지容認할지가 問題이라한다

金融制度改善 調査會復活
產業調査會에提案

朝鮮의 金融統制는 朝鮮金融制度調査會에서 銀行의資本整備、特銀、信託、金組、無盡各制度의 基礎的調査를하고 이에 基하야 統制를 進行하고잇는데 同調査會는 經費節減으로 七年度로서 終了하고 今日에 及하얏는바 朝鮮의 金融界에는 그後의 新情勢로

一、普通銀行의局面打開
一、特銀의機能調整
一、鑛業、金融機關創設
一、朝銀制度의再檢討

等의 重要懸案이 山積하야 此等의 基礎的調査를 官民의 權威者를 모아 行할 必要가 잇게되어 財務局에서는 今番의 產業調査會에 對하야 朝鮮金融制度調査會의 復活을 提案하얏는데 때가때니만큼 同調査會의 復活은 關係方面에서 크게期待하고잇다한다

物價指數續騰
比前年同月七分의騰貴
穀類一齊低落이나

朝鮮銀行調査＝八月中의京城都賣物價指數는 明治四十三年七月을 一〇〇으로 基準算出한것이 一九三、四七로 前月에比하야一、一四의 騰貴이고 前年同月에比하야 一三、三二의暴騰인바 前月을一〇〇으로하면 一〇〇、五九이오 前年同月을 一〇〇으로 하면 一〇七、三九로서 七分의 昂高이엇다

調査品目總數中 八月物價 比前月騰貴品은 騰貴九品、低落十品、保合十一品으로서 各品別은 如左하다

▲騰貴＝小麥 綿絲 生絲 石油 樽寸 小麥粉 豆粕 銑安 牛皮
▲低落＝玄米 精米 大麥 大豆 粟 朝金巾 三尺巾 綿絲 砂糖

物價高나 勞賃不變

朝銀調査＝八月의 京城都賣物價指數는 續騰되엇스나 京城勞賃은 八月指數가 前月과가타야 不變이엇다 即明治四十三年七月賃銀을 一〇〇으로한 指數가一七五、二六이다

物價騰勢는 世界的傾向

(日銀調査)巴里를 除外하고前月一齊히 騰勢를 示한 內外物價指數는 八月에드러와서도 依然騰勢를 繼續하야 東京은 一七九、六으로 前月에比하면 二、六의 昂騰으로 昭和四年以來의高記錄이다 倫敦은 前月에比하야 三、六의騰貴를 示하야 一二一、九로 昭和五年以來의 最高記錄이며 紐育도 一一七、〇으로 前月에 比하야 〇、五의 騰勢를 示하야 今年의 最高記錄을 示하얏스며 一方 巴里(七月)는 前月에 低落하얏서도 當月은 騰勢로 轉하야 前月에比하면 一一高의 三八三으로 이것도 今年의 最高記錄을 示하얏다 右와如히 世界物價는 騰勢로 向하고잇는데 그中 東京은 主로 農產物의 顯著한 昂騰에 起因한것이라한다 倫敦은 一般業界의 活況의反映이며 紐育은 農產物凶作에 依한農產品의 昂騰을主因으로하다 一方巴里의 騰勢는 日本으로金塊와地方實需의 保證의 輸出의增進等에 依한 軍需物價의 奔騰에 依한것으로 推測된다 이제 指數를보면 如左하다

	八月	前月比昂騰
東京	一七九、六	二、六
倫敦	一二一、九	三、六
紐育	一一七、〇	〇、五
巴里(七月)	三八三	一一

朝銀券의前途?
滿洲通貨統一完成後
發行高激減必至!

朝銀券의 發行은 財界最好況時代인 大正八年에는 最高一億六千三百萬圓 最低八千五百萬圓으로 當時 其流通은 朝鮮、滿洲는勿論 西伯利亞出兵에伴하야 北滿에서 浦鹽、樺太等에 及하고 一方 天津、靑島方面에도 相當한 流通을보앗스나 其後 日本에서는 財界反動、金解禁等이잇고 또 滿洲에서는 發行을 廢止치안흘수업게되어 同八年以後十數年間은 發行高의 減少를보게되엇다 이제 朝銀創業以降의 發行高最高、最低를보면

	最高 千圓	最低 千圓
明治四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大正三年	[illegible]	[illegible]
同 八年	[illegible]	[illegible]
同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昭和四年	[illegible]	[illegible]
同 五年	[illegible]	[illegible]
同 六年	[illegible]	[illegible]
同 七年	[illegible]	[illegible]
同 八年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	[illegible]	[illegible]
同 十年	[illegible]	[illegible]

即 昭和七年까지는 大體漸減의 經過를 示하얏스나 同年以後는 朝鮮財界의 好轉에 따라 朝鮮內의 流通이 增加하얏는데 特히 滿洲事變以後는 同地의 軍費支辨 其他資金의 需要繁忙과 流通區의 擴大에 伴하야 顯著히 發行高의 增加를 보하야 昭和十年과 如함은 最高二億二千九百萬圓 最低一億三千二百萬圓이라는 新記錄을 示하얏다 그러데 昭和十年秋以降 滿洲國은 國幣에依한 統一方針을取하고 同年十二月下旬以後는 滿洲國內의 銀行의 金圓取引에 顯著한 制限을 附하야 朝銀券의 流通은 漸減의 趨勢를 示하야 十一年上半季의 發行高는 最高二億二千萬圓 最低一億五千三百萬圓으로 되엇다 그리고 今年의 現在까지의 最低는 八月十二日의 一億三千七百萬圓인데 其後 多少增加하야 八月末日에는 一億四千七百萬圓의 發行高를 示하얏다

要컨대 前述한바와 如히 滿洲國의 通貨는 國幣로서 統一될 方針임으로 朝鮮券의 發行增加趨勢가 減退할것은 當然하나 朝鮮內의 銀行券需要는 財界의 發展에 伴하야 漸增傾向에잇슴으로 滿洲國의 通貨統一完成後 朝銀券의 發行總高가 如何한 程度로될는지 今後의 推移를 보지안흐면 明白히 알수업을것이다 (寫眞은朝銀券)

主要鑛業을統制
◇—機會보아具體化

總督府 殖產局에서는 業者無煙炭合同에 依하야 無煙炭業의 統制를 實現하얏는데 朝鮮鑛業界의 現狀에 鑑하야 다음 諸鑛業에 就하야 各其統制를 研究中으로 今年度以降 漸次的으로 具體化할러이라는바 總督府研究中인것은

一、石炭鑛業＝無煙炭과 共히 有煙炭統制에 就하야서도 資本合同을 行하고 工業用原料炭과 燃料用에 適切한 統制를 行함
一、金鑛業＝全朝鮮的으로 探掘鑛山三千을 超하는만큼 資本統制는 困難하나 中小鑛業伸張을 爲하야 中小金鑛業統制를 目標로하고잇다
一、黑鉛鑛業＝이미 斯業은 飽和點에 達하얏슴으로 此種統制中 가장先行할것이 豫想된다
一、탕스텐水鉛＝軍需鑛物의 見地이나 統制잇는開發을 行할必要上調査中이다
一、重石鑛＝朝鮮의 重石은 黑鉛과가티 世界的으로 伸張할 將來性이잇고 이統制는 開發上急務이다

殖產局에서는 이미此等五項에關하야서는 基礎的調査도 終了되엿슴으로 機會를보아 具體化할러이라한다

經濟界消息

◎三和銀行頭取入京＝大阪組合銀行會長 三和銀行頭取中根貞彥氏는 二十四日午後三時二十分에 入京하리라고

取引停止 (九月十五日)

▲京城府薰井町六六番地李錫範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三一番地李鏞緒 ▲京城府旭町三丁目一三番地中田政吉

經濟寸鐵

○朝鮮米는 大凶作이니 米穀自治管理法發動에 過剩米配定變更을 農林局이要求하리라고
◎農林省이 여기를들어줄가?
○金融制度調査會를 復活하리라고 普通銀行의 全朝鮮一行主義나오려나?
○物價高에 勞賃不變 大衆이살기는 점점어려워진다

商況 (十八日)

株式 百四十圓突破

前場暴騰 大市勢의 騰勢가 加하야 今前場은 東新百四十圓五十錢으로 新高價로 暴騰하고 鐘新百七十五圓丁大新七十二圓七十錢日產八十四圓丁이며 朝取八十九圓三十錢 新三十七圓丁으로 諸株가 好勢이엇다

▲朝取 [illegible] ▲朝新 [illegible] ▲鐘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後場下押 後場은 東新百三十八圓八十錢 大新七十一圓五十錢 日產八十三圓六十錢 朝取八十八圓五十錢 朝新三十六圓七十錢에 下押大引

▲北濱情報 株式의 物色循環買投機的色彩를 帶하야 山의腰入深甚으로 今朝活況을呈하엿스나 行政機構改革으로 軍部不滿激化를傳하야 警戒되나 一部買方의 作戰도加味되어 利喰以外는 賣物업고 押目買頻出이다

日中關係緩和 東新二次爆發

日中關係의念慮와 增稅問題로 氣迷가기더 一旦高價를 보이고는 不透明한 育狀을보엿스나 北海의 十九路軍撤退報道로 不安이緩和되고 電力國策도 民有國營案이될것이 確實해짐에 따라 半官半民의 統制會社가 될것이니 旣往의恐怖解消로 好感되엇스며 特히陸軍豫算 八億二千圓의發表는 新國防計畫六個年 十億圓과함께 軍需인플레에對한 期待는 ...

強氣의目標

東新은 여러가지點으로보아 完全히 底入한 市勢라고 보이는데 勿論 鐘株同株으로 ... 新高價百四十圓을突破하는 壯烈한光景이다 뿐더러 新規惡材料가 出現하지 안는限에는 ... 向의 一路를 밟을것이라고 強氣側은 期待한다 ...

實物前場取引

▲朝鮮製鍊 ... ▲日滿亞麻 ... ▲東洋拓殖 ... ▲大同產業 ...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增稅大綱發表도 何等刺戟이업시 依然 傍觀으로 日本內地價는 모다不變保合이엇스나 外貨價는 조금식 賣物이 散見되어 米貨六分半二十錢低五分半三十錢低로 下押하엿다

大阪國債市場

[illegible]

米期 前寄低後 下澁

前場狂騰 昨後場阪地三十圓十七錢止와共히 二十七圓七十九錢에 場寄止한 當市場은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丁인 十七丁反落을 ... 十八丁 突落으로 最低 十一錢인 ... 給한後阪地三十圓丁을 最低로 ... 最高七十九錢까지 反押하엿다가 結局七十九錢의 最高止값의 同價로 止하엿다

後場底堅 [illegible]

政府米賣却과 各地天候恢復

農林省에서는 昨十七日에 拂下한데에지 百五十萬石中에서 五十萬石을 今月中에 賣却하기로 하고 百萬石은 來月中으로 即新米出廻前까지모다 拂下하기로 發表되엿스며 ...

米 …… 買方主力인 田中貞은 阪地三十圓大關門을 死守하고잇다 그關門앞에의 伏兵이 그얼마나되는지는 몰으나 可謂危機一髮의 最後一戰▲그러나 獨不將軍의 格이되엇스니 衆寡不敵의 緣이어지안라고 ...

株 …… 東新에 畢竟人氣爆發▲二、二六事件以來의 新高價인百四十圓大關門突破의 白熱戰 ▲七個月萎縮는 強氣萬歲▲增稅이니 取引所改革이 떠들고 너무떠려진것스니 어찌反動이업슬손가 ▲百四十圓으로 올라갈다고 ...

六感

米價觀測區區
兩方差異懸隔

朝鮮의米作은凶作 日本內地의米作은 豊作으로 旣히 一般이周知하는바이나 그러나 그數字가 果然어떠한程度일지 兩方의觀測이 區區不一하다 朝鮮米作은 一割減收說로 ... [illegible]

今日財界 (十八日)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軟弱 ... 仁川引緩 ... 釜山軟落 ... 大邱不變 ... 群山下澁 ... 木浦保合 ...

堂島前場情報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金融 十八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京城正米 ◆京城府中金融價 ◆東京市中金融價 ◆金買入價 ◆外國爲替 [illegible]

商品 十八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絹布 ◆朝鮮粕沖價 ◆飯法沖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大阪綿糸 ◆大阪棉花 ◆大阪人絹 ◆各地人絹 ◆大阪砂糖 ◆滿外砂糖 ◆刈和生糸 ◆各地正租市勢 [illegible]

株式 十八日

◆朝取短期 ◆朝取定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十八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正米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株式 期米 玉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米 株 光皿 仁川 東益商店 金益證券株式會社

仁川期米 仁 仁川海岸町 紺谷取引店

朝取取引員 アジア證券 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リ二丁目生命ビル